

한국어판

Wood & Steel

THE AD27E

Flametop

New for '22
2022년 신모델

AD22e
GTe Blacktop
GTe Mahogany

The 2022
Guitar
Guide

2022년
테일러 기타
가이드

A NEW
FLAVOR OF
TAYLOR
TONE

QUALITY
Taylor
GUITARS

Letters

Email us
taylorguitars.com/contact

Sharing the Joy 기타와 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최근 구매하신 테일러 T5z Classic Koa LTD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기타가 도착하던 날, 아버지께서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 같으셨죠. 아버지께서는 틈만 나면 연주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기타를 치시느라 일을 빠지는 날도 있으실 정도였죠.

제 취미가 사진 찍는 것이어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보내기 위해 제게 새 기타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직접 기타를 연주하시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드리겠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병이 악화되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여러분에게 기타의 사진을 보내려고 하였던 것이 기억나서 서터를 눌렀죠.

아버지께서는 여러모로 멋진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실제로 잘하지 않더라도 가장 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었던 훌륭한 기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Jess Goins & the Goins Family
Bill Goins를 추모하며
12/08/50 - 11/08/21

Lifetime Love 인생 기타

우드&스틸 지난 호 뒤표지에 실린 월넛 측후판에 싱커 레드우드 상판의 커스텀 GA를 보고, 바로 인터넷으로 하나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부 일리노이에 있는 모조 뮤직(Mojo's Music)에 재고가 하나 있었고, 저는 매장으로 전화해 전문적이고 아주 친절한 가게 주인 토마스 풀렌(Thomas Pullen)씨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만에, 기타 가격이 찍힌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일이 잘 풀리는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아름다운 작품이 도착한 후로 거의 쉬지 않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포함한 기타의 모든 면에서 놀라운 품질과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리는 풍부하고 따뜻하며 음역은 넓고 트여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314와 GS Mini 코아, 거래 제한 전의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로 만들어진 귀한 옛 나고야 기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새 기타는 제가 가진 악기 중 최고이며, 제 기타 중에서 연주감과 마감에 관한 한 그 어떤 기타보다도 좋습니다. 이 기타는 제 인생 최고의 기타이고, 테일러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

히 좋은 기타를 제작해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멋진 기타를 평생 연주할 겁니다.

Charlie Levy
Suffolk, Virginia

The Big Short 큰 바디 짧은 현장

제가 얼마나 제 새 테일러 326ce를 좋아하는지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326ce가 현장도 짧고 라이트 게이지 스트링에 바디가 크고 스트럼에 좋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손이 작아 현장이 짧은 김슨의 슬로프숄더(Slope-shoulder) 스타일의 기타를 연주해 왔는데요, 326ce가 바로 제가 그동안 테일러가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기다려온 기타예요. 앞으로 테일러에서 24.75인치 현장에 라이트 게이지의 스트링이 걸린 큰 바디에 스트럼이 좋은 기타를 또 만드신다면 제가 제일 먼저 살게요.

멋진 기타 감사합니다!

Emily Barracano

A Lasting Legacy 예술의 유통기한

저는 지난 우드&스틸 101호에 앤디 파워스의 칼럼 “영원한 가치(Lasting Value)”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앤디는 많은 아이디어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특히 오래된 기타에 대한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것에 대한 감사는 “새롭고, 기술이 더 좋아졌으니 어쨌든 예전의 것은 버리고 최신 모델을 사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앤디와 같이, 저도 손을 사용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래되어 망가진 틀니를 고치곤 하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손으로 모형 비행기를 만들고, 쓰레기통에서 찾은 캐비닛 가게에서 버린 목재, 혹은 작업대에 버려진 단단한 나무 조각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놀았습니다. 저만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죠. 성인이 돼 치과 의사가 된 이후 사람들이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매케이브스(McCabe's)에서 첫 기타를 사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게 50년 전 일이네요. 그 후

로 기타는 힘든 일과를 마친 후의 제 친구가 되었고, 비록 제가 중급 연주자 정도의 수준이지만 더 잘 연주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기를 많이 샀는데 테일러 기타도 몇 대 샀습니다. 314, 614, 814, T5까지 총 4대가 있습니다. 그중 GA가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관해 앤디와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과 연주하고, 항상 새로운 노래를 배우며 슬로와 코드 멜로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80년의 세월은 나무의 에이징과 비슷합니다. 소리와 음색, 결, 아름다운 기타를 집어 들 때의 느낌. 그리고 그 기타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끝없는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social circles

Join the Taylor community

Facebook: @taylorguitars

Instagram: @taylorguitars

@taylorspanol

Twitter: @taylorguitars

YouTube: TaylorQualityGuitars

니다. 제 딸과 아들 그리고 손녀 중 몇 명은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이 자라며 라이브 음악을 듣는 것이 그 아이들이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한(Lasting)” 것에 대해 앤디가 쓴 글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음악을 듣고 받은 감동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이 우리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음악은 무한하니까요.

Mike Lerner

디지털 에디션도 놓치지 마세요

‘우드&스틸’ 인쇄본과 연관된 비디오 콘텐츠들을 무료로 디지털 에디션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Taylorguitars.com에서 Owners 하단 메뉴 바 또는 woodandsteel.taylorguitars.com을 방문해주세요.

이번 호 콘텐츠들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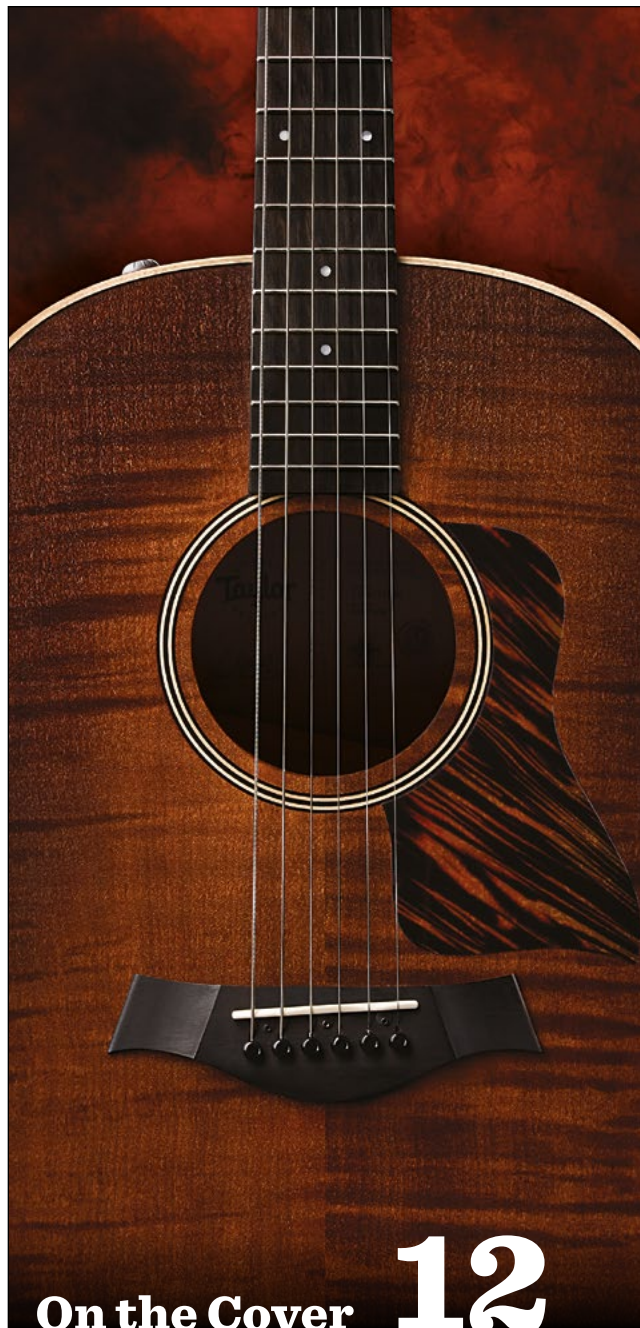
테일러를 사용하는 아티스트의 영상,
기타 레슨, 신모델 데모 영상, ES2 픽업 사용법,
테일러를 사용하는 Latin GRAMMY 후보자들과
수상자의 Spotify 플레이리스트

비디오 콘텐츠들은 QR코드를 스캔해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WOOD&STEEL | VOLUME 102 | 2022 ISSUE 1



On the Cover **12**

The AD27e Flametop

어메리칸 드림 시리즈의 신작으로 소개되는 2022년 최신 모델 AD27e 플레임 탑(Flame top)의 사운드 및 디자인 등을 살펴봅니다.

Features

8 **The Wood&Steel Interview: Andy Powers**
우드&스틸 인터뷰 : 마스터 기타 디자이너 앤디 파워스
기타 빌더로서 그가 테일러에서 이룩한 업적, 뛰어난 기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해 온 혁신 그리고 테일러 기타 사운드 스펙트럼의 확장 등에 관한 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12 **New for '22**
2022년 새롭게 선을 보이는 AD27e 플레임 탑, 마호가니 상판 그랜드 콘서트 모델 AD22e, 2종의 GT 신모델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GT611e 등을 소개합니다.

Columns

4 **Kurt's Corner**
커트 리스틱 회장이 말하는 테일러 시그니처 바디 형태인 그랜드 오디토리엄 바디의 탄생 배경 및 성공 스토리.

5 **BobSpeak**
전세계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대제작수량을 기록한 배경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등... 밥 테일러의 후일담.

45 **The Craft**
기타를 연주하는 일یدن 만드는 일یدن 그 여정은 끝이 없으며 항상 보상이 따르는 무언가를 추구하게 마련이다.

Departments

6 **Ask Bob**
아카시아 목재, 전세계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어려움, 나뭇결폭이 넓은 목재, 기타 스트링 고정 및 설계 기법 등 여러분의 질문과 그에 대한 밥 테일러의 명쾌한 답변을 소개합니다.

16 **Sustainability**
전세계가 겪고 있는 플라스틱 공해가 심각합니다. 스캇 폴이 재활용의 신화를 가진 플라스틱 소비의 실상을 파헤치고 플라스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테일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46 **TaylorWare**
테일러 기타와 관련한 피크, 카포, 스트랩 및 기타 관리 용품 등을 소개합니다.



19 **Tone Terminology**
어쿠스틱 기타의 음색과 사운드를 표현할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20 **Taylor Body Shapes**
기타의 바디 모양과 사이즈 그리고 내부 브레이싱이 기타 사운드와 연주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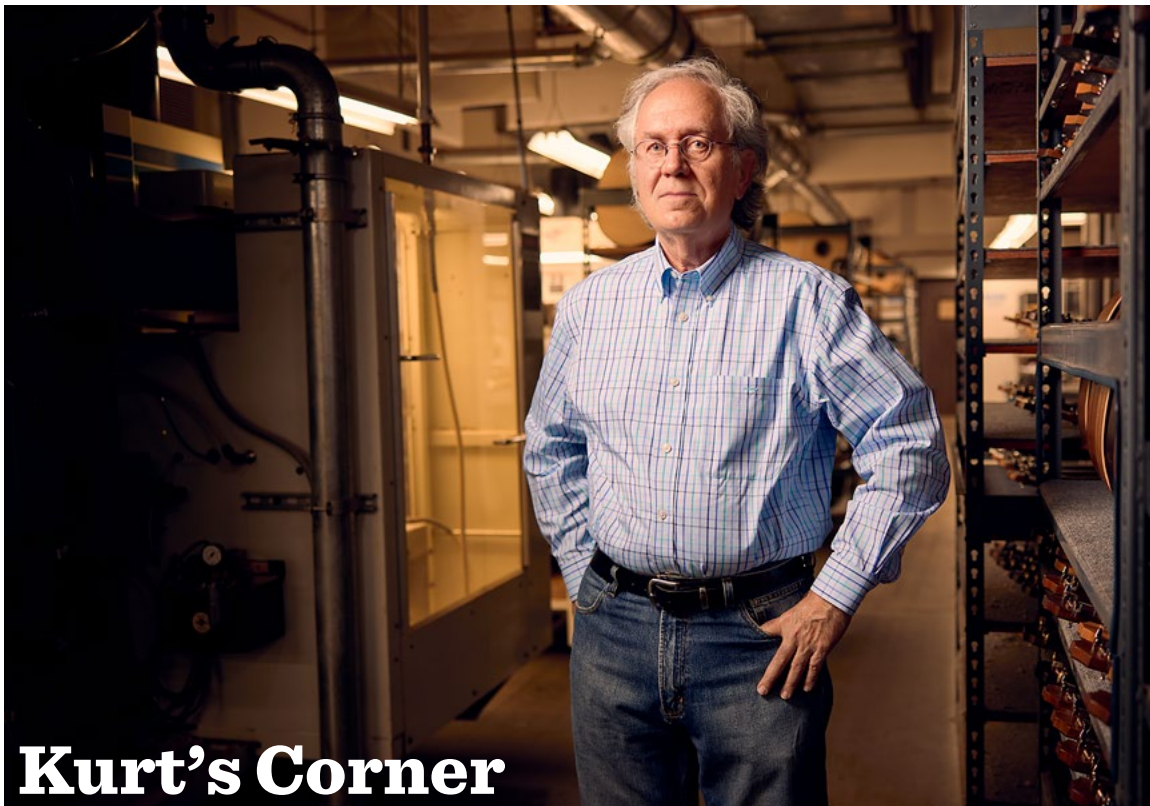
22 **Taylor Tonewoods**
기타 제작에 사용되는 여러 음향목의 사운드 특성을 분석해 봅니다.

24 **The Taylor Line at a Glance**
한눈에 보는 테일러 기타 전체 라인업과 목재 구성.

25 **A Guide to Taylor Acoustic Model Numbers**
테일러 기타의 모델 넘버 가이드.

26 **The Taylor Line by Series**
테일러 기타의 각 시리즈별 사양 및 특성.

18



Kurt's Corner

또 하나의 그랜드 시리즈 디자인

테일러의 그랜드 콘서트 기타가 유명세를 탄지 10년이 지나서 그랜드 오디토리엄이 탄생했다. 그 이후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지난 호에서 1984년에 소개된 그랜드 콘서트 기타의 바디 개발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바디가 많은 기타리스트들에게 알려지면서 1980년대 내내 테일러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1987년까지 예상 밖의 성장에 캘리포니아 레몬 그로브에 있는 원래 매장이 협소해져서 인근에 있는 산티(Santee)라는 도시로 옮겼고, 1992년까지 성장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우리가 오늘날 테일러의 본거지 엘 카혼에 새로 사옥을 지어 자리를 잡았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어쿠스틱 기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그랜드 콘서트 모델의 인기와 맞물려 우리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던 것이다.

우리의 그랜드 콘서트 기타를 발견하고 연주했던 아티스트 중에 캐시 마테아(Kathy Mattea)라는 여성 컨트리 뮤직스타가 있었다. 그는 1993년, 샌디에이고 투어중에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밥은 당시에 그랜드 콘서트처럼 매우 균형 잡힌, 하지만 좀 더 크면서 소리도 크고 베이스도 강한 그런 기타를 디자인하려고 했었다. 캐시가 방문했을 때 밥은 그에게 새로운 기타에 대한 그의 계

획을 얘기하면서 그에게 첫 번째 기타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기타가 바로 그랜드 오디토리엄이 되었다.

1994년에 우리는 20주년 기념으로 두 가지 한정판 모델, 스프루스 상판에 로즈우드 조합의 XX-RS와 마호가니와 씨더 상판 조합의 XX-MC를 선보였다. 다음 해에는 GA-RS(로즈우드/스프루스), GA-MC(마호가니/씨더), GA-WS(월넛/스프루스), GA-BE(브라질 로즈우드/앵겔만 스프루스), GA-KC(코아/씨더) 및 GA-KS(코아/스프루스) 등 6개 한정판 그랜드 오디토리엄 모델을 출시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랜드 오디토리엄은 표준 모델로서 테일러 기타 라인업에서 다양한 시리즈로 출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테일러 기타의 아이콘이라 여기는 로즈우드/스프루스 조합의 814ce가 그중 하나이다.

그랜드 오디토리엄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절한 기타였다. 모던한 스타일에 좀 더 편안한 바디, 보다 균형 잡힌 톤, 보다 쉽게 연주할 수 있는 넥, 컷어웨이 및 종폭을 위한 픽업/프리스트럼프가 내장되어 있다. 우리가 시장에 요구에 부응하여 내놓은 혁신의 집대

성, 그랜드 오디토리엄은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 기타는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그 후 10년 동안 우리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여전히 가장 잘 팔리는 바디로 남아있다. 그랜드 오디토리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테일러 기타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기타이다. 다음 칼럼에서 우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중요한 발전들에 대해 좀 더 회고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돌이켜보면 2021년은 테일러 기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바로 100% 종업원 소유가 된 첫 해였던 것이다.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사업 성장을 경험했다. 매출 최대, 테일러 직원수 최대, 기타 제작 최대, 기타주문 최대, 그리고 1일 기타 선적량 최대 등을 경험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종업원 사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회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커트 리스탁(Kurt Listug), CEO

Wood&Steel Volume 102
2022 Issue 1



Produced by the Taylor Guitars Marketing Department

Publisher Taylor-Listug, Inc.
Vice President Tim O'Brien
Director of Marketing Craig Evans
Editorial Director Jim Kirlin
Art Director Cory Sheehan
Graphic Designer Ryan Hanser
Photographer Patrick Fore

Contributors

Colin Griffith / Kurt Listug / Gabriel O'Brien / Scott Paul
Shawn Persinger / Andy Powers / Chris Sorenson / Bob Taylor / Glen Wolff

Technical Advisors

Ed Granero / Gerry Kowalski / Crystal Lawrence / Andy Lund
Rob Magargal / Monte Montefusco / Dave Pelletier / Andy Powers
Bob Taylor / Chris Wellons / Glen Wolff

한국어판

발행 어쿠스틱 기타 앤 뮤직
번역 최석구 / 박규훈 / 최원준 / 강소원
편집 김상필
영업 & 마케팅 이요섭 / 최원준
인쇄 예인

Wood&Steel is distributed to registered Taylor guitar owners and Authorized Taylor Dealers as a complimentary service.

Online

Read our digital edition and other back issues of *Wood&Steel* at woodandsteel.taylorguitars.com

©2022 Taylor-Listug, Inc. All Rights reserved. TAYLOR, TAYLOR (Stylized); TAYLOR GUITARS, TAYLOR QUALITY GUITARS and Design; BABY TAYLOR; BIG BABY; certain aspects of distinctive detailing (Peghead Design; Bridge Design; Pickguard Design); ACADEMY SERIES; 100 SERIES; 200 SERIES; 300 SERIES; 400 SERIES; 500 SERIES; 600 SERIES; 700 SERIES; 800 SERIES; 900 SERIES; PRESENTATION SERIES; QUALITY TAYLOR GUITARS; WOOD&STEEL; ROBERT TAYLOR (Stylized); TAYLOR EXPRESSION SYSTEM; EXPRESSION SYSTEM; TAYLORWARE; DYNAMIC BODY SENSOR; T5; T5 (Stylized); R. TAYLOR; R TAYLOR (Stylized); AMERICAN DREAM; T3; GRAND SYMPHONY; WAVE COMPENSATED; GS; GS MINI; ES-GO; FIND YOUR FIT; V-CLASS; GRAND PACIFIC; TAYLOR QUALITY GUITARS AND CASES; T5Z; TAYLORSENSE; NT NECK; BUILDER'S EDITION; A. POWERS SIGNATURE; THERMEX; DARKTONE; AEROCASE; TAYLOR GT; and GA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Taylor-Listug, Inc.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jurisdictions.

C-CLASS is a trademark of Taylor-Listug, Inc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jurisdictions.

ELIXIR and NANOWEB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W.L. Gore & Associates, Inc. D'ADDARIO PRO-ART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J. D'Addario & Co., Inc. NUBON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David Dunwoodie.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BobSpeak

기타 제조업의 영향력

기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밥은 왜 테일러의 생산 능력이
모두에게 도움을 준 건지 설명한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어느덧 코로나19, 2년 차가 끝나간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테일러의 새로운 종업원 소유제가 정착했고 최악의 공급망과 배송망의 제약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타를 고객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타를 오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장들이 폐쇄되고 우리를 좌절케 했던 바로 그해, 2019년에는 이전 기록보다 4만대의 기타를 더 만들었으며 작년에는 7만 8천대 이상의 기타를 더 제작했다. 2019년에 40,000대의 기타가 증가한 것 자체만으로도 대부분의 대형 어쿠스틱기타 회사의 연간 생산량보다 많은 것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기타매장의 벽이 텅텅 비었던 1년 동안 우리의 공급을 지켜봐준 딜러들이 우리의 노력에 감사했다. 반면 아무리 기다리고 찾아 헤메도 기타를 구하지 못해 테일러가 대체 언제쯤이나 기타를 제대로 공급할 지 모

르겠다는 일부 고객들의 불만도 있었다.

멕시코 테카테(Tecate) 공장에서 만든 대부분의 기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베이비 모델을 많이 만들었다. 그것은 그 모델에 쓰이는 원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는 거기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기타에 쓰이는 원목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을 개발했지만, 그 외의 나머지 기타들의 경우는 수요에 못 미쳤다. 특히 그 가격대에서는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여 년 전 우리가 테카테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그 가격대의 기타는 항상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국가의 제품들이었다. 당사가 테카테에서 고품질의 기타 제작을 개시하자 매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많은 기타 연주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TV 경연 프로그램에서 젊은이들이 GS Mini, 아카데미, 빅베이비, 100시리즈 기타

로 겨루는 것을 보고 TV에서 다른 어떤 기타보다도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그 연주자들이 누가 제작했는지 간에 더 좋거나 더 비싼 기타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예산에 맞는 기타 수준에 그들의 음악까지 타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 엘 카혼(EI Cajon) 공장에서 기타를 생산하면서 우리는 많은 기록을 세웠다. 대부분의 기타가 만들어졌고 가격대도 다양했다. 새로운 구매조건들이 제시되고 품질은 저하되지 않으면서 앤디 파워스가 새로운 기타를 디자인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항상 그랬듯이 앞으로 나나갔다.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흥미진진한 일이 정말로 많다. 우리의 연구개발은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잠시 미룰 수는 있지만, 그건 진정

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기타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기타를 만드는 일에 게을리하고 싶지 않다.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항상 공장이 훌륭한 제품과 훌륭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어왔다. 정말 멋진 기타를 만드는 훌륭한 제작자들이 많이 있다. 나는 그들의 일을 질투하지도 않고, 그들이 만드는 기타를 과소평가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기타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정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장 인기 있는 빈티지 기타는 거의 대부분이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공장의 장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주자뿐만 아니라 판매자, 직원, 딜러 및 지역 사회까지 말이다.

나는 공장도 좋아하고 공장에서 만든 기타, 특히 우리 기타를 좋아한다. 스마트하고 현신적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
기타 제조업의 장점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주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 직원, 딜러와
지역사회에도 말이다.

”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 때 사람들이 기타 구하기가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거의 8만대에 이르는 기타를 증산했다는 사실에 나의 공장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다. 전 세계 매장 재고감소를 감안하고 여기에 지난 2년간 우리가 만들어 공급한 기타까지 합치면 초보자부터 경험 많은 뮤지션까지 수십만 명의 기타 연주자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혹은 커트에게 묻는다. 그 당시 테일러가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는지.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상상할 수 없었다고.

-밥 테일러(Bob Taylor), President

Ask Bob

아카시아 목재, 공급망 문제, 상판 목재의 무늬 그리고 스트링이 안착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카시아 목재를 기타에 사용한 적이 있나요?

Patrick Thompson
Satellite Beach, Florida

P.S. 최근에 362ce를 구매했습니다.

연주하기 편하고 사운드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패트릭, 몇몇 종류의 아카시아 목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스프루스와 로즈우드도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있듯이 아카시아 나무에도 대략 100개가 넘는 정도의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코아 그리고 아카시아 멜라녹실론(태즈매니안 블랙우드)은 우리가 만드는 기타에 정기적으로 사용됩니다. 미국에서는 조경 목적으로 쓰이는 나무들을 아카시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종류는 너무 다양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에서는 노란 꽃이 피는 스위트 아카시아 나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그 나무들은 호주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의 블랙우드 기타들은 대부분 호주산을 사용해왔지만 현재는 캘리포니아에서도 구할 수 있는 같은 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반 애쉬와 같이 마케팅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블랙우드 목재들을 우리는 조경목에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블랙 아카시아라고 흔히 부르지만 원래 자라는 곳에서는 타사미안 블랙우드나 오스트레일리안 블랙우드로 불려집니다. 당신이 새로 구입한 362ce는 아카시아 측후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재가 시간이 오래될수록 습도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궁금합니다. 목재 속에 있는 수액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고체화되면서 기타가 수분을 덜 흡수하거나 발산한다고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ric Mayne
Denver, Colorado

에릭,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내부는 항상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고대 목재나 천 같은 전시품들이 온 습도 관리가 되는 박물관 안에서 보관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투탕카멘 시대의 목재 조각품들이 수축되거나 팽창할 만큼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면 20년 된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기타의 경우 흔히 일어나는 일이 1년 안에 아주 건조하거나 또는 매우 습한 경우에 노출돼서 나무가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일이 많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목재의 사이즈가 새로운 형태로 변형됩니다. 이 때문에 가끔 기타의 크랙이 단순 온 습도 관리를 통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95% 정도의 경우 적절한 온 습도 관리가 이뤄진다면 해결되지만 매우 건조한 상태로 보관이 된 경우에는 목재 자체가 수축되어 크기가 변해 온 습도 관리만으로는 수리가 안됩니다. 하지만 이미 기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타를 만들 때는 3~4회 정도의 주기로 목재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사이즈로 만드는데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세탁해도 잘 줄어들지 않는 청바지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목재를 위아래로 적절한 수분함량 안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결과물은 그만한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타가 수년 동안 좋은 온 습도에서 관리되고 시간이 지난다면 더욱더 튼튼해지고 상처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건강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저절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신경을 더 쓰고 관리를 잘 해줄수록 투탕카멘의 조각품처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 가치가 있어집니다. 항상 잘 다뤄주세요.

목재 수급과는 별개로, 코비드19로 인한 원자재 부족이나 공급망 붕괴 등의 현상이 테일러의 생산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Marco L.
Vancouver, BC, Canada

마르코,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연수지와 합성수지의 부족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이로 인해 피니쉬 재료들과 바인딩 그리고 케이스를 포장하는 비닐까지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릴 비트, 톱날, 라우터 비트, 사포, 테이프, 헤드 머신 그리고 픽업의 프리앰프까지 많은 부품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배송 문제도 있습니다. 선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배송기간이 30~45일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변을 보면 입항하려고 수개월 동안 기다리는 배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관도 손쓸 도리가 없다. 그리고 트럭 운전기사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순환 때문에 전세계의 컨테이너들도 계속 가동 중이라 컨테이너도 부족합니다. 가끔 해외로 보낼 기타를 실을 컨테이너들을 기다리는 데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인력 부족도 심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딜러들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최고의 공급자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최고의 고객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는 수년 동안 저의 신념이었고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저의 신념을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현재, 공급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40년 넘게 유지됐으며 테일러 팀이 우리뿐만 아니라 훨씬 더 확장된다는 느낌에 보람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의 공급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테일러 역사상 가장 많은 기타를 생산하고 수출했습니다. 우리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공급자들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본 기타 관련 영상에서였습니다. 슬로티드 브릿지 핀보다 슬로티드 브릿지

가 (기타 브릿지에 홈을 파서 브릿지와 기타 줄이 밀착하는 길이를 연장시켜 줌으로써) 새들과 기타줄이 이루는 각도 이른바 '브레이크 앵글(Break Angle)'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결과적으로 브릿지를 통해 상판으로 전달되는 줄의 진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음색과 서스테인 음량 등 모든 면에서 개선된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작자 관점에서 슬로티드 브릿지로 가공하는 작업은 큰 비용 부담없이 CNC 머신의 간단한 셋팅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사운드는 한층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제가 언급한 슬로티드 브릿지로 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항상 혁신을 추구하는 테일러의 철학과도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Ryan Phillips
Herriman, Utah

(*편집자 주 : 테일러의 마스터 디자이너 앤디 파워스는 전문가 수준의 위 질문에 훌륭하게 하면서 기꺼이 답을 했습니다.)

라이언, 슬로티드 브릿지는 제작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논의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여러번에 걸쳐 같은 기타를 두가지 버전으로 만든 후 사운드를 모니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결론은 양쪽 다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홈이 있는 핀을 사용하는 경우 핀이 핀홀에 견고하게 끼워지면서 스트링을 아주 단단히 고정시키게 되는데 이는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인 물리적 및 음향적 결합을 이루게 합니다. 슬롯 없는 핀과 슬로티드 브리지 조합의 경우는 브릿지 플레이트에 볼 엔드가 견고하게 고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새들 뒤쪽의 스트링부위를 브릿지 표면에 완벽하게 밀착, 고정시키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위에서 스트링의 고정은 전적으로 스트링의 장력과 (고정포인트를 거친 후의) 매끄러움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브레이크 앵글은 스트링 램프(스트링 브릿지에서 빠져나오는 부위)의 높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두 가지의 경우 모두 앵글 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테일러의 경우 아래 세가지 방식으로 기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1. 슬로티드 핀과 일정 부분만 홈이 파여있는 슬로티드 브릿지를 사용해서 브레이크 앵글과 브릿지에서 새들에 이르는 줄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 2. 전체적으로 홈이 파인 슬로티드 브릿지는 12현 기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커플을 이루는 2개현의 미세간격 작업, 전체적인 줄간격조정 및 브릿지 앵글 조정이 용이합니다.
- 3. GS Mini 베이스에 사용되는 슬로티드 브릿지 핀은 스트링 볼 엔드가 슬롯의 반대쪽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일러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이 핀은 두꺼운 베이스 스트링이 구부러지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스트링과 상판과의 연결을 최적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타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만드는 것 자체에 열정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하고 싶은 다른 창작물도 있나요?

Mark V.
Sarasota, Florida

마크, 저는 취미로 가구를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기도 하죠. 기타 제작과는 또 다른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을 익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고 싶은 가구의 디자인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했습니다. 저의 좋은 친구이자 같이 테일러에서 일했었던 리차드 베리에게서 가구 디자인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리차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뛰어난 커스텀 가구 제작자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곤 합니다. 그가 가구 디자인을 배울 때 훌륭한 멘토가 있었고 그 노하우를 나에게 전수해줬습니다. 다른 취미로는 제 차인 1997년식 Land Cruiser를 직접 튜닝 하거나 정비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매년 미국 남서부 쪽이나 바하 캘리포니아 지역을 오프로드 여행을 하면서 내부 구조나 직접 전기를 끌어 써야 하는 상황일 때 아주 재미있습니다.

다른 회사, 예를 들어 중국 공장이 테일러의 제조 기술들을 카피해서 당신의 비즈니스를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적재

음향목의 나뭇결에 따라 소리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나뭇결이 뾰족하게 촘촘한 목재와 나뭇결 폭이 넓은 목재가 차이가 있을까요?

Eric Hutchinson

에릭, 간단합니다. 나뭇결이 더 넓은 목재가 소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재는 가벼울수록 진동이 잘 전달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뭇결이 넓은 모든 목재가 촘촘한 목재들보다 소리가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의 경험에 의거할 때 좋은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제가 테일러가 만드는 200만대의 기타들을 일일이 다 쳐보지는 않지만 좋은 것을 판단할 정도 관찰하고 사운드를 들은 충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을 한 알 복용해서 괜찮다고 두 알 먹는 것이 더 좋지는 않죠. 어느 일이든지 적당한 선이 있습니다. 상판 목재는 좋은 기타가 만들어지는 범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산권 보호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니 궁금합니다.

Devon Thomas
El Paso, Tex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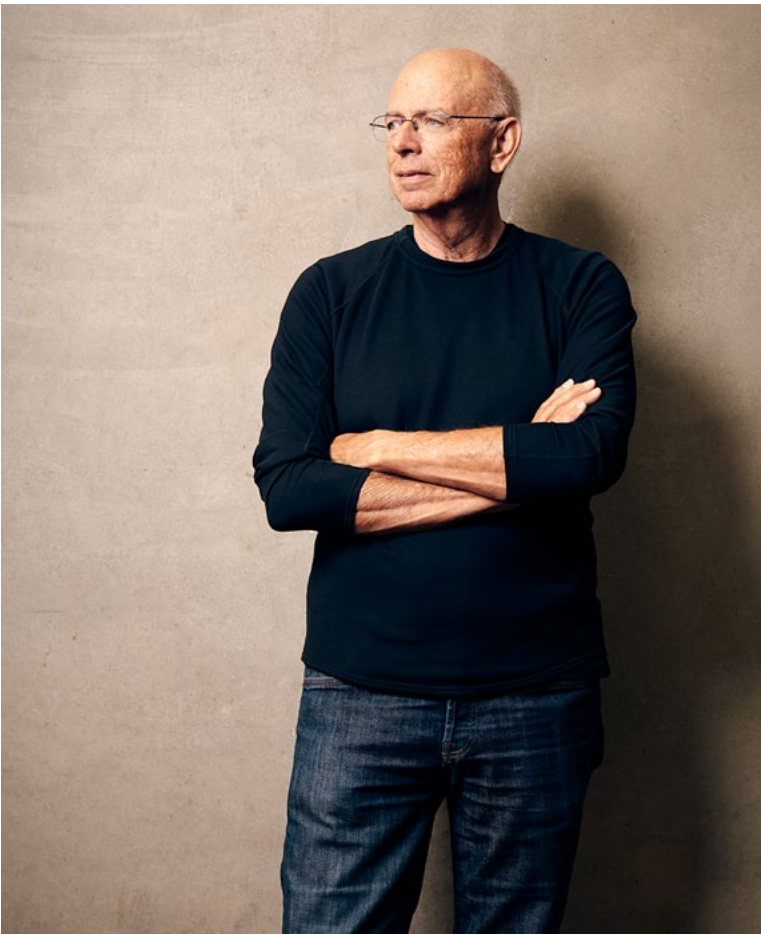
디본, 좋은 질문입니다. 테일러를 목표로 발전할 것을 추구하는 다른 회사들보다 우리 스스로가 정제되는 걸 더 염려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뛰어난 공정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기업들을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 자신과의 경쟁을 항상 원합니다. 저희 공장에 다른 사람들이 견학이 오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작은 비법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비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타를 만듭니다. 매일 매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저희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희 공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고 집에 가서 새로운 영감이 막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우리 공장을 견학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실천으로 옮겼을 겁니다. 그러므로 공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해도 별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군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뿐입니다.

밥, 혹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 기타제작이나 목재가공 등 젊은이들에게 장인정신을 알려주고 영감을 주는데 당신이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Andrea J.

종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고려해봤지만 결국에는 제가 가장 잘 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직업으로서 테일러 기타의 좋은 점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타 제작, 공장 설계, 사업적으로나 또는 장인정신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도 있죠. 심지어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방법, 재료들을 더 창의적으로 쓰는 방법 등 아주 많습니다. 제가 67살이 다 되었는데 시간을 조금 더 되돌려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는걸 즐겼을 겁니다.

414ce를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그레이드를 생각중인데 다른 모델들을 시연해 볼 곳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저는 대도시에서 약 2시간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는데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대리점은 재고가 없습니다. 가끔 100번 혹은 200번대 시리즈는 있더군요.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기타를 구매할 수도 있죠. 물론 특정 모델을 시연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타를 선택하지 않고 결국에는 시연하지 않은 기타를 구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제는 시연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군소 대리점이나 그 가게의 고객들에게 기타를 시연할 수 있게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Alan Cooper
Hawley, Pennsylvania

(*테일러 기타 세일즈 부서 부사장인 몬티 몬테푸스코에게 그의 의견을 물었다.)

앨런,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수요

를 맞추기 위해 쉬지 않고 계속 기타를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다 만들어서 매장까지 도착해도 오래 지나지 않아 판매됩니다. 우리는 테일러 전 모델들이 문제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딜러들이 작년보다 더 많은 기타를 공급받습니다. 단지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뿐입니다. 현대 모든 딜러들은 예약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지역 딜러에게 연락해서 어느 모델이 입고 예정인지 물어보고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타가 도착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물어보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 안 기다려도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타를 생산하고 있으니 곧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Scan the cod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밥의 답변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기타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해 밥 테일러가 답변합니다.

다음 메일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askbob@taylorguitars.com

기타 수리 및 서비스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시스템으로 (800) 943-6782 (미국) 전화해 주시면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The Wood&Steel Interview:
..... ANDY POWERS

T O N E T A L K

테일러의 수석 기타 디자이너

앤디 파워스(Andy Powers)

심층인터뷰

테일러 기타 디자인의 발전과정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의

음악적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에 대한

그의 얘기를 들어본다.

글 : 짐 켈린(Jim Kirlin)

앤디 파워스와 나는 테일러 사내에 새로 단장된 그의 작업실 한가운데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작업대에 모여 테일러의 기타 제작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튜디오 공간은 나무와 목공 작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세팅되어 있었다. 넓고 깔끔하며, 창문을 통해 바닥까지 들어오는 햇빛이 온 공간을 밝혀준다. 이 공간은 체스 보드 스타일의 에보니와 사펠레 바닥을 포함해서 기타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펠레, 블랙우드, 에보니 등의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멋진 맞춤 작업대와 수납 캐비닛들이 혼합, 배치되어 있다. 공간의 분위기는 인위적이지 않고 세련되고 따뜻하며 상당히 기능지향적인 느낌을 준다.

작업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은 상당한 숙고의 과정을 거친 후 배치되었다. 한켠에 신모델 프로토타입 제작용 목재 세트를 쌓아 놓은 선반이 있으며, 다른 편에는 클램프와 전동 샌딩머신 등이 작업 순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

되어있다. 그리고 앤디가 각별하게 애착을 갖는 프리워 작업공구인 데이비스 & 웰스(Davis & Wells) 전동톱(Band Saw)도 눈에 띈다.

“빌 콜링스(Bill Collings)의 작업공간에 상당히 매료되었습니다.”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그 공간의 탄생 배경과 뛰어난 실용성에 대해 설명한다. “내게 이렇게 멋진 작업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집에도 동일한 작업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기타제작자로서 앤디는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이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평생 목수로 일 해 왔습니다. 저의 경우 목공을 시작하게 된 시기는 저의 집을 지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한 배경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걸 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 그들이 사물을 대하는 시각, 경험하고 싶은 욕망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강요당해 왔다는 것은 앤디에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재고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어서 삶을 더 의미 있는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든 방식일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들은 기타를 배우기로 결심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공백 후에 기타를 다시 연주했다. 앤디의 경우는 자신의 작업실을 재설계하고 기타 제작과 관련된 일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타를 만드는 게 설레인다. 오랫동안 그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할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화와 성장이 뒤따른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악기를 바라보고 이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올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속 재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수많은 마호가니나 메이플, 스프루스로 작업해 왔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보통 우리는 똑같이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 나는 아직도 나무와 나무로 만든 악기에 대해 발견해야 할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목공 일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그는 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지만 앤디는 혁신이라는 또 다른 형질을 갖고 있었다. 그는 1900년대 초반에 그의 고조부 아서 테일러(그렇다. 그의 성은 테일러였다.)가 손으로 그린 발명품의 특허 도면 사본으로 장식된 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내연기관용 점화장치부터 사람이 한 손으로 못을 박을 수 있도록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 망치까지 다양하게 있었다.

“그 그림들을 힐끗 보면서 어떻게 망치처럼 익숙한 사물을 보고 기발한 방식으로 그 기능을 향상시켰는지 생각해 보는 게 참 재미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우드&스틸 기타 가이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앤디가 테일러에서 추구하는 디자인, 테일러 기타 라인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은 논의가 없을지 고민했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앤디의 혁신적인 디자인 덕분에 기타 라인업이 테일러 역사상 최고로 다양한 음악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테일러에서 일한 지난 11년을 돌이켜볼 때 당신과 밥 사이에 기타 설계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나요?

디자인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은 없습니다. 단지 기타가 음악적으로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죠. 기타 제작자로서 연주자들에게 음악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타를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만든 기타가 소장 가치가 있고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죠. 하지만 저와 밥이 기타를 제작하는 목적은 연주자들이 저희 기타를 통해 음악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음악 활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음악만큼 훌륭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작하는 모든 기타들은 각각의 음악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마다 음악적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기타들은 각자의 특별한 음악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기타를 똑같은 방식으로 연주할 수는 없죠. 테일러 기타의 전 모델을 살펴보면 악기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다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면 기타들의 소리는 모두 다릅니다. 큰 사운드를 가진 기타, 명확한 사운드가 특징인 기타, 터치 반응이 좋은 기타, 따뜻한 소리를 내는 기타, 청량하고 밝은 사운드의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하죠. 또한 조용한 방에서 혼자 연주하고 싶은 기타도 있고 반면에 공연 무대에서 쓰고 싶은 기타도 있습니다. 모든 기타들이 각자의 개성과 목적이 뚜렷합니다. 이런 점이 제가 다양한 종류의 기타를 제작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요소 중 하나죠. 기타를 특정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로 만드는 데에는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일러 기타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기타 라인업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테일러 기타 라인업에 더 많은 다양성을 추가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15년 전에 만들어진 테일러 기타들을 보면 각각의 모델들이 기타 설계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변수를 포함한 기타의 전체적인 스케치와 측후판의 목재들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사용되는 과거에는 대다수의 부품들도 서로 동일했습니다. 각 모델에 맞게 부분적으로 모양이 다른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비슷했죠. 이런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면 더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기회를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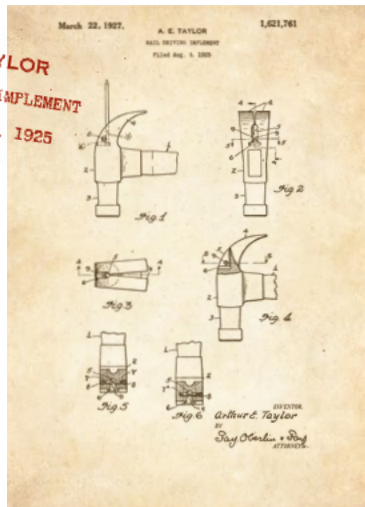
테일러에서 일하기 전에는 커스텀를 기타 제작했는데 그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커스텀 기타 제작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기타 제작을 원하는 손님이 찾아오면 먼저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운드를 원하며 평소에 무슨 음악을 즐겨 듣는지 등등을 물어보죠. 그런 후에 원하는 악기를 만들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논의합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음악적 다양성은 여전히 저에게 흥미를 일으키는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연주자들의 음악적 취향과 연주 및 작곡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기타를 연주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소리를 다르게 듣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저는 제가 만드는 기타들은 각각의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일러에서 일한 지 11년이 흐른 지금 테일러 기타 라인업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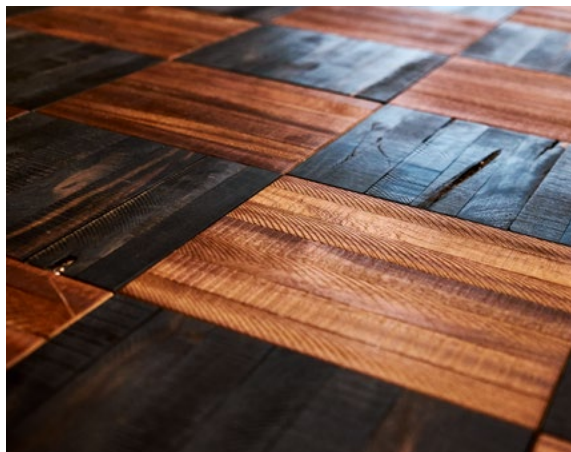
현재 테일러 브랜드의 위치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전 모델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외관, 음악적 기능, 톤, 기타를 연주할 때의 느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 수준의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밝은 이런 토대를 갖추려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노력

해왔습니다. 기타는 연주하기 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팅이 잘 되어있어야 하죠. 넥은 단단하고 곧게 뻗어져 있어야 되며 정확한 피치에 맞게 모든 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타마다 소리가 나오는 구조가 완벽히 설계가 되어있어야 하죠. 그 후에야 우리는 기타의 소리에 대하여 어떤 것이 좋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기타의 사운드를 평가할 때 최신 장비를 사용해서 소리의 음역대별 주파수까지 분석할 수 있지만 연주자들이 기타를 연주하는 걸 듣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기타마다 특정 주파수에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그 현상을 제가 연주하는 방식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타는 섬세한 표현력이 장점이고 또 다른 기타는 강한 스트럼을 할 때 매력에 돋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디자인들이 연주로 표현할 때 돋보이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랜드 오케스트라 시리즈를 예로 들면 두꺼운 피크를 사용해 스트럼을 하면 파워풀한 볼륨과 선명한 음색이 마치 에스프레소를 연상시키죠. 저는 다양한 음색을 좋아하고 저를 포함한 모든 연주자들이 기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앤디의 고조부 아서 테일러(Arthur Taylor)가 1927년에 설계한 다기능 망치의 설계도. 기존의 망치에 드라이버 기능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음향 엔진이라고 평가받는 V 클래스 브레이싱 시대를 맞이한 지 몇해가 지났는데요. 시간이 흘러 GT 기타에 맞게 설계된 C 클래스 브레이싱으로 이어졌습니다. V 클래스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V 클래스로부터 나오는 발전의 기회를 확실히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GT 기타에 비대칭 C 클래스를 구현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런 면에서 향후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V 클래스 기타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비슷한 목재를 사용하는

다른 모델들 사이에서도 각각의 모델에 기반하는 후판 브레이싱에 맞게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방법에 따라 다양한 톤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빌더즈 에디션 652ce 12현의 후판 브레이싱을 보면, 브레이싱 팀의 마감 방식, 위치 설정 방식 등이 기타의 톤에 맞게 달라지는 겁니다.

테일러의 사운드 영역을 그랜드 퍼시픽과 같은 새로운 바디 스타일로 확장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GT 모델 제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테일러 사운드

의 상징으로 여겼던 주력 상품군, 그랜드 오디토리엄을 넘어서는 제품군의 매력에 눈에 띄게 확대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그들의 작품에 의해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타 제작자이든, 음악가이든, 아니면 다른 부문의 예술가이든 말이죠. 당신이 주로 하는 일이라면, 어떤 스타일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좋아하는 밴드의 음악을 듣는 것과 유사하죠. 그들의 사운드, 그들의 노래, 스타일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결국 기타의 사운드는 기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생성된다."

다. 그러다가 그들이 매우 다른 새로운 레코드를 출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이 같은 밴드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화했고, 다양한 스타일과 소리를 가미한 것입니다. 기타 제조업체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랜드 오디토리엄(GA)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모던 어쿠스틱 기타를 만들었죠. 컷어웨이가 달린 GA기타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기타들이 맘에 듭니다. 연주자가 통기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하거든요. 하지만 GA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회사로서 우리는 그랜드 콘서트를 만들기 전에 점보 기타와 드레드넛 기타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GS와 GS Mini 기타를 개발했고 최근에는 그랜드 퍼시픽(GP)과 그랜드 시어터(GT) 기타도 만들었습니다. GP와 GT만의 매력을 알아주는 연주자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모든 기타들이 서로 다른 음악적 환경에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지요. 그 모든 경험을 좋아합니다.

매년 “우드&스틸” 기타 가이드를 통해 기타를 분석하고 바디 모양과 목재와 같은 주요 구성요소에 따른 소리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재에 따른 톤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톤 인포그래픽 개발에 큰 도움을 주셨죠. 그 때 확인해 주신 내용은 각 목재에 대한 톤의 개요 [주파수 범위, 오버톤 개요, 반영도(연주자/디자인 반영 대 목재 반영) 및 터치 감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타는 훨씬 더 복잡한 구성요소가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더 정확한 접근 방식은 각 모델에 대한 차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는 함께 작동하는 요소를 더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기타를 안고 기타 줄을 튕길 때, 들리는 소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줄, 피크, 새들, 브릿지, 상판, 후판, 넥, 브레이싱, 기타 크기 등 각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운드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구성요소 대비 어느 한 구성요소가 기타 사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특징하는 것은 쉽

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요소들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모든 매니아들은 자신의 기타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모든 요소들의 결합체라는 것입니다.

기타의 사운드는 기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연주자도 기타의 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고 말고요. 저는 최근에 70년대 초 엘튼 존(Elton John)을 녹음하던 엔지니어가 쓴 책을 읽고 있었는데 당시 모든 사람들이 엘튼 존의 피아노 사운드를 원했습니다. 그 엔지니어는 엘튼 존의 사운드를 그대로 내기 위해 마이크 배치를 하고 다른 기술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엘튼 존과는 다른 피아노 사운드처럼 들렸죠. 잠시 후 엘튼 존이 세션에 도착해서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그와 똑같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피아노나 마이크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연주자의 터치로 전달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피아노는 현과 연주자의 손끝 사이에 기계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꽤 주목할 만합니다. 피아노에는 건반을 치면 펄트 천으로 덮인 해머가 현을 치는 동작을 구현하게 되는 수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머는 매번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뉘앙스를 살릴 수 있는 건반을 터치할 수 있을까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이 작은 나무 건반/펠트 천/가죽의 메커니즘은 결국 현을 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기타를 생각해 봅시다. 음악가들의 손끝이 직접 현에 닿아 연주를 하는 겁니다. 기타가 개인적인 악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달라지는 것이죠.

음색의 특성에 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기타 사운드와는 연관이 있지만 사운드에 해당하지 않는 ‘느낌’과 ‘반응성(response)’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기타 사운드를 논할 때 사운드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항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타사운드를 논할 때 귀로 듣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타 연주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때문이죠. 이 느낌에 관한 사항은 높낮이나, 장력 또는 현장 등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기타를 연주할 때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현이 감촉이 '유연하다!' '탄력적이다!' 이런 요소들은 연주자에게 크게 작용하여 결국 사운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지극히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연주해 보고 있는데, 연주할 때마다 내가 그 악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아치 탑(Arch Top)을 들고 플랫탑 연주방식으로 연주하고 있으면, 그 아치탑이라는 녀석이 제게 "앤디, 나를 그렇게 연주하는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제가

뮤지션은 연주를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기타의 경우 기타와 연주자가 접점을 이루는 지점은 바로 스트링의 터치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스트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서핑보드의 예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서핑보드는 환경 또는 서핑스타일에 따라 다른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하지만 서퍼들에게는 자신만의 특정한 취향과 환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미 제작되어 출시된 서핑 보드를 구매한 후 그것을 자신의 니즈에 따라 독특한 방식으로 미세하게 튜닝 작업을 합니다.

기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친구가 기타를 새로 구입했다고 했을 때, 첫번째 질문은 "어떤 기타를 샀니?" 두 번째는 "스트링은 어떤 걸 걸었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피크를 사용하니?" 기타에 대해 진지한 친구라면 이 세 가지 질문이 우선적으로 던질 만한 질문일 겁니다. 이는 기타에 있어서 세가지 중요사항이기도 그 중요

"GT를 연주하면 부드러운 연주감과 빠른 반응성 때문에 같은 멜로디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맞는 스타일로 연주해준다면 그때야말로 악기가 신이 나서 맘껏 제소리를 내주게 됩니다. 한가지 더 예로 GT의 경우는 말랑말랑한 현의 느낌과 빠른 반응성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프레이즈를 연주해도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되죠.

즉 많은 연주자들은 지금 얘기한 연주자와 악기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때로는 자신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악기가 아닌 지극히 생소한 악기가 대화를 원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 잘 풀어나가는 경우 독창성과 음악적 스펙트럼 측면에서 일취월장 하게 됩니다.

잠시 기타 스트링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최근 앤디가 설계해서 발표한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 시리즈의 경우 디다리오(D'addario) 스트링이 사용되어 선택의 폭이 조금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은 어쿠스틱 기타의 사운드와 느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도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즉 기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스트링 그리고 피크... 따라서 기타 스트링의 심선(core)에 감겨 있는 랩와이어의 재질은 무엇인지, 코팅현인지. 장력은 어떤 편인지 등은 기타의 사운드와 느낌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쿠스틱 기타 플레이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트링은 포스포브론즈 스트링이지만 올해 발표된 AD27e 플레임 탑에는 니켈과 구리 합금 와이어로 랩핑된 스트링을 걸어 출시되었습니다. 메이플 상판이라는 다소 생소한 스펙과 함께 이 스트링을 통해 새로운 사운드와 대응성 그리고 나아가서 테일러 기타의 사운드 스펙트럼이 확장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피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연주자가 사용하는 특정 피크가 있을 때 대체 어떤 특성 때문에 그 피크를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강도와 모양 그리고 재질에 따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종류의 피크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항상 새로운 피크를 테스트해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진정한 아티스트의 자세라고 봅니다.

기타제작가로서 스트링 선택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나 트럭을 만들 때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 회사들은 차량이 시험 운전 기간내 이상없고 좋은 성능을 발휘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기간의 성능을 위해 첨가제가 포함된 특정 엔진 오일이나 특정 타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타를 만들고 줄을 걸지만 첫 번째로 시연하는 사람이 구매할지, 열 번째로 시연하는 사람이 구매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1마일 떨어진 조그만 매장에서 판매될 것인지, 아니면 배를 타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 도착한 매장에서 판매될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견디고 연주자가 그 기타를 시연할 때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는 현을 사용합니다. 기타를 구매하면 훌륭하고 음악적으로 흥미로운 선택지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현의 질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코팅되지 않은 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 친숙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게 하지 않게 하려면 현을 자주 교체해야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둔탁한 소리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녹음에 사용한 오래된 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저는 하프 라운드 와운드 현을 사용합니다. 재즈 기타 현의 플랫 와운드나 리본 와운드와는 다릅니다. 어쿠스틱 기타 줄이나 일렉트릭 기타 현의 라운드 와운드 아닌 둘의 중간입니다. 포장을 뜯자마자 칙칙하고 약간 둔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베이스 기타에서 나는 그런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 기타에 딱 맞는 소리입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새모델 AD27e 플레임 탑과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오래돼서 둔탁한 소리가 나는 스트링이 주는 매력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낡은 스트링이 걸려져 있는 기타로 어떤 연주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음향적 측면에서 보면 오래된 스트링의 둔탁한 소리에서는 고역대의 오버톤이 거의 없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징' '챙' 등의 쇠소리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느낌이죠. 녹음 엔지니어들은 소리가 너무 둔탁하고, 어택도 약하며 명료함이 부족하고 할 것입니다. 고음역대의 오버톤이 음의 명료함을 더해주며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링이 오래될수록 소프트한 음을 들려주며 그 시작과 끝도 불분명해집니다. 한마디로 쇠소리보다는 나무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온화한 음색의 기



타를 연주해보면 아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자신이 추구하는 기타 설계에 어떤 요소들이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까지의 결과물들을 보면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영감을 얻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연주를 하면서 음악적인 삶을 살고 있고, 주변의 많은 뮤지션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테일러라는 최고의 기타메이커에서 일하면서 첨단기술과 고급정보에 접할 기회도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향후 선보일 기타 설계에 어떻게 적용시킬 생각인가요?

기타 설계는 상당히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작업입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작자중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완성된 설계를 바탕으로 기타를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최고의 목재 등 재료를 찾고 있다." 기타를 설계할 때 현재 내가 갖고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좋아하는 음악과 연주 그리고 사운드 등 모든 것들을 담아 기타를 디자인했습니다.

향후에 생각하는 기타 디자인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멋진 사운드와 독특한 감성 또는 연주스타일을 갖춘 뮤지션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위한 기타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디자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뮤지션을 찾거나 또는 새로운 음악적 동기가 부여되며, 가용할 수 있는 목재와 그것에 맞는 바디 형태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뮤지션의 음악에 맞도록

기타를 보이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어떤 피니쉬가 좋을까? 이어서 어떤 스트링을 걸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겠죠. 이것은 마치 셰프에게 특정한 식재료가 주어졌을 때 자신에게 "자, 그러면 이 재료로 어떤 요리를 만들어서 어떤 손님의 테이블에 올릴까?"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물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에서 관례적으로 별목된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반 애쉬(Urban Ash)가 그중 하나죠. 이런 흐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에서의 식림 사업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모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시의 나무들로 작업을 시작했을 때 비록 초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실행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추구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해내야 하는 일이고,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이 도시의 나무들로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재료의 질과 이 식림 사업 모델이 목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숲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시 숲에서 나오는 수종으로 목재 포트폴리오를 중대시킴으로써 특정 수종 또는 공급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고무적인 출발입니다. 그것은 이 계획이 순조롭고 꾸준하게 계속될 수 있으며 다양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타 제작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보람된 위치인 것입니다. **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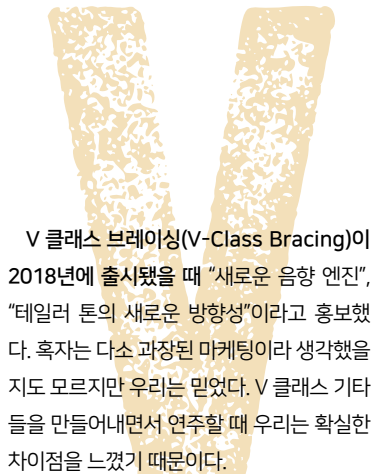
NEW
— *for* —
'22

**A SMOKIN'
FLAMETOP
GRAND PACIFIC
LEADS THE PARADE OF
NEW TAYLOR MODELS,
PLUS THE GT
FAMILY GROWS**

매혹적인 플레임 탑
그랜드 퍼시픽 모델과
GT 시리즈의 성장이
돋보이는 2022 테일러
신모델들을 소개합니다

..... *By*
JIM KIRLIN
.....





V 클래스 브레이싱(V-Class Bracing)이 2018년에 출시됐을 때 “새로운 음향 엔진”, “테일러 톤의 새로운 방향성”이라고 홍보했다. 혹자는 다소 과장된 마케팅이라 생각했을 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믿었다. V 클래스 기타들을 만들어내면서 연주할 때 우리는 확실한 차이점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티스트, 녹음 엔지니어, 리뷰어들도 향상된 서스테인과 볼륨 그리고 지판 전체를 아우르는 정확한 음의 전달력 등을 언급하며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V 클래스로 인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것이다. 지금 V 클래스로 제작된 기타를 소유하고 있는 연주자라면 이전의 테일러 기타와의 뚜렷한 변화를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V 클래스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 마스터 빌더인 앤디 파워스는 V 클래스로 인해 기타들이 사운드적으로 더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모델들의 음악적 개성을 더 뚜렷하게 표현해주는 장치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연주자들에 다양한 어쿠스틱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출시 후 4년이 흐른 지금 V 클래스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가 테일러 라인업에 안정적인 자리잡았다. 게다가 V 클래스를 기반으로 새롭게 출시된 바디 스타일, 그랜드 퍼시픽(Grand Pacific)은 테일러의 대표격인 그랜드 오디토리엄(Grand Auditorium)과 차별화된 사운드를 내준다. GA의 사운드는 모던한 쪽에 가깝다. 청명한 울림과 한음 한음의 뚜렷한 전달력이 일품이다. 반면에 GP의 사운드는 전통적인 드레드넛의 톤에 가깝다. 따뜻하고 풍성한 배음이 더 넓게 퍼지는 소리이다. 또한 V 클래스 브레이싱이 풍성한 저음을 구현해주며 드레드넛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인 녹음이나 공연시에 해상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개선시켜 준다.

그 다음으로 테일러의 프리미엄 라인업인 빌더스 에디션 시리즈가 출시됐다. 모델별로

각각의 유니크한 톤들이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연주할 때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디자인하여 연주자가 최상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다. 현재 각각의 개성이 뚜렷한 9 개의 모델들이 빌더스 에디션 시리즈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새로운 바디 스타일인 그랜드 씨어터(Grand Theater)는 그랜드 콘서트(Grand Concert)보다 더 짧은 스케일(24-1/8인치)로 구성된 시리즈이다. V 클래스에서 착안한 C 클래스 브레이싱은 비대칭 모양의 브레이싱으로 일반적인 작은 기타에서 나올 수 없는 파워풀한 저음을 만들어내준다. 작은 기타의 편의성과 그와 동시에 풍성한 사운드가 연주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새로운 바디 셰입인 GP와 GT가 기존의 테일러 라인업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사운드를 내주면서 연주자들에게 한층 더 관심을 끌게 되었다. GP는 GA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르와 연주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 한편 GT는 아직 출시 되지 얼마 안됐지만 연주자들에게 편의성, 뛰어난 레코딩 사운드, 전달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새해를 맞아 출시된 GP와 GT의 장점이 그대로 녹아든 2022년 신모델들을 소개한다.

AD27e FLAMETOP

빈티지풍의 외관과 사운드와 새로운 느낌의 테일러를 제공한다.

Back and Sides: Solid Big Leaf Maple
Top: Solid Big Leaf Maple
Neck: Hard Rock Maple
Fretboard: Eucalyptus

테일러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볼 수 없는 사운드를 들려주는 올 메이플 구성의 GP 바디 셰입인 AD27e 플레임 탑(Flame top)은 올해 신모델중에 가장 흥미로운 기타이다. GP 바디 셰입이 기존의 청아하고 해상도가 높은 테일러 사운드와 달리 따뜻하고 빈티지한 사운드를 추구하는데 이번 AD27e GP 바디 셰입의 특성을 더 깊이 표현해준다.

이 모델의 시작은 음악적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다. 테일러는 내슈빌, 로스앤젤레스의 아티스트들과 수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테일러 아티스트 협력팀은 여러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작곡할 때 어쿠스틱 기타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얘기를 나눴다. 그 결과 아티스트들에게 사운드면에서 더 다양한 선택지를 주기 위해 GT와 GP를 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너무 선명하지 않고 따뜻하며 담백함이 강조된 어쿠스틱 사운드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GP가 풍부한 드레드넛 사운드를 내주면서, 앤디 파워스는 다른 목재조합을 이용하여 특히 고음역대를 정갈한 사운드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했다. 또한 빈티지한 외관과 톤을 겸비하여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에 어울리는 기타이면서 공연을 하는 뮤지션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기타이다.

코비드 19(COVID-19)와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 문제가 생긴 유통망 때문에, 앤디는 목재선택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앤디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목재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제작 기간 당시에 테일러에는 충분한 양의 메이플 목재가 있었고 앤디가 이번 모델에 추구하는 빈티지한 사운드를 내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메이플은 너무 단단해서 어쿠스틱 기타의 상판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V 클래스 설계를 이용하면 상판의 움직임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운드보드로서의 기능이 가능하게 됐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빈티지한 톤을 위해 디다리오 니켈 브론즈 스트링을 채택한 것이다. 니켈 브론즈만의 독특한 성분이 이 모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디다리오의 니켈 브론즈 스트링은 니켈과 포스포 브론즈 그 중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앤디는 설명한다. “기타에 걸었을 때 일반적인 브론즈 스트링들과는 다른



사운드가 두드러진다.”

8 페이지에서 앤디와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처럼, 니켈 브론즈 스트링은 고음역대의 배음을 부드럽게 내주는 성향이 있다.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 앤디는 줄이 길들여진 사운드를 더 선호한다.

“나는 가끔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운드를 원한다. 그래야만 줄의 소리보다는 목재 본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앤디가 말한다.

바디 스타일, 목재 구성, 스트링 구성을 포함한 앤디의 디테일한 디자인적 의도를

이 AD27e를 매력적이며 테일러 모델중에서도 독특한 톤을 자랑한다. 기존의 테일러 사운드보다 더 담백하고, 단단하며, 편안한 사운드를 구현한다.

앤디는 톤의 다른점과 그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사진 촬영기술에 비유하면서 촬영 기술에 따라 보는 사람에게 다른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고 말한다.

“초고화질의 사진을 떠올려보자. 색감이 명확하며 포커싱이 완벽하고 파도의 작은 물방울들까지 묘사된 사진들을 많이 봤다. 이런 스타일의 사진들은 기술적으로 매우

촬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퍼들 사이에서는 액션샷의 표본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유행을 떠나서 나는 색상이 다소 어둡거나 약간 역광이 있고 초점이 흐릿한 사진에 더 끌린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완벽한 초점보다 더 의미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완전히 다른 느낌을 포착해준다.”

마찬가지로 목재, 디자인, 줄, 피크 등이 사진에서의 조명 또는 포커싱과 같이 다른 느낌을 전달하는 요소라고 앤디는 말한다.

“연주를 하면서 선명하고 해상도가 높은 사운드를 원할 때도 있고, 때때로 그 반대의 사운드에서 그 순간의 감정이 더 표현이 잘 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의 본성이다. 그림도 마찬가지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림들을 보면 실제 그려진 사물과 더 붙어서 화가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들을 우리도 느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믹싱 프로그램을 통해 기타의 피치까지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아직도 V 클래스 브레이싱의 장점인 피

치의 정확성이 녹음 시에 상당히 유용하며 효과적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가장 유명하고 감동적인 음악들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함의 미학이 있다. 그리고 기타리스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만의 독특한 사운드와 톤을 끊임없이 연구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타도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래서 더 끌리는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기타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가장 완벽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앤디는 말한다.

앤디는 AD27e 플레임 탑의 사운드적 특징과 외관이 공통점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피규어드 메이플 상판은 이 모델의 확실한 개성을 가지게 한다. 셰이드드 에지버스트를 입힌 은은한 우드스모크 피니쉬와 무광 처리로 된 메이플 상판, 후판, 넥이 마치 오래된 청바지와 부츠의 멋을 떠올리게 한다. 다른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와 같이 이 모델도 모서리 부분이 곡면 처리 되어 있으며 심플한 도트 인레이와 ES2 픽업이 장착되어있다. 에어로케이스와 같이 제공된다.

AD22e

하드우드 상판의 그랜드 콘서트 모델이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에 합류한다.

Back and Sides: Solid Sapele
Top: Solid Mahogany
Neck: Mahogany
Fretboard: Eucalyptus

앤디는 하드우드 상판으로 만들어진 작은 사이즈의 기타를 선호한다. 그래서 마호가니 상판을 사용한 그랜드 콘서트 모델을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에 만들기로 결정했

다. “하드우드 상판으로 만들어진 작은 바디의 조합은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앤디는 말한다. “연주하기 편하며, 블루지한 사운드와 컴팩트한 바디에서 나오는 응축된 소리가 재즈나 핑거스타일을 연주하기에 뛰어난 기타이다. 물론 스트러밍 코드에서도 훌륭한 성량을 내준다. 다양한 장르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타이다.”

사펠레와 마호가니의 목재 조합이 중, 저음 역대를 우디하고 담백하게 표현해주며 특히 V 클래스 브레이싱으로 더 향상된 미드레인지

의 훌륭한 펀치력이 일품이다. 바디 모서리 곡면 가공과 비교적 짧은 24-7/8인치의 스케일이 연주의 편의성을 배가시킨다. 디다리오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 게이지가 걸려 나온다.

다른 세부사항으로는 검은색 퍼플링이 들어가있으며 지판에 4mm 도트 인레이가 있다. 메이플 목재로 싱글 링 로제트와 토르토이즈 픽가드가 붙여있으며 얇은 매트 피니쉬가 목재의 가장 내추럴한 외관과 사운드를 표현해준다. 니켈 튜너와 ES2 픽업이 내장되어 있으며 에어로케이스가 함께 제공된다.

AD27
Flametop



Scan the cod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신모델 전용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GT_E BLACKTOP

월넛과 함께 더 다양해지는 GT 사운드.

Back and Sides: Solid American Walnut
Top: Solid Spruce
Neck: Neo-Tropical Mahogany
Fretboard: Eucalyptus

월넛은 우리가 지난 여러해 동안 자주 사용한 목재이다. 목재들이 점점 희귀해지면서 월넛은 테일러 라인업에서 조금 더 중요한 음향목으로 쓰일 것이다. GT_E Blacktop이 출시가 되면서 블랙탑의 매력과 또 다른 보이스를 GT라인업에 첨가할 수 있어 기대된다.

음색에 관해서는 기존의 GT Urban Ash와 비슷하다고 앤디는 설명한다.

“GT Urban Ash의 사운드를 들었을 때 플라멩코 기타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다. 빠르고 강한 어택을 느낄 수 있다. 마호가니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무게에 속해서 극적이고 청량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월넛은 미세하게 더 응축된 사운드가 나며 명확한 저음부가 특징이다. 연주를 했을 때 첫 음이 애쉬처럼 청량하지는 않지만 음이 지속 될수록 더 명확한 힘이 느껴진다. 애쉬가 플라멩코 기타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월넛은 각각의 음들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측면에서 클래식 기타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다른 GT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날렵하고 연주감이 굉장히 편하며 계속 연주하고 싶게 만드는 기타이다. C 클래스 브레이싱이 장착되어 있어 작은 바디에서도 공간을 가득 채우는 웅장한 사운드가 일품이다. 다른 세부사항으로는 모서리 곡면 가공 처리가 되어있으며 메이플 로제트와 도트 인레이가 지판에 새겨져 있다. 또한 블랙탑은 얇은 매트 피니쉬로 가공되었으며 미니 니켈 튜너와 ES2가 장착되어있다. 가볍지만 단단한 에어로케이스가 같이 제공된다.

GT_E MAHOGANY

목재 본연의 소리가 연주자의 손을 거쳐 생동감을 더해준다.

Back and Sides: Solid Neo-Tropical Mahogany
Top: Solid Neo-Tropical Mahogany
Neck: Neo-Tropical Mahogany
Fretboard: Eucalyptus

2022년을 맞아 GT 시리즈에 올 마호가니 모델이 합류하면서 라인업이 한층 더 강화됐다. 블루지한 매력이 넘치는 마호가니 상판의 밸런스 잡힌 우디하고 담백한 톤이 핑거피킹과 스트러밍을 하기에 적합하다. 상대적으로 짧은 GT의 24-1/8인치 스케일 길이는 연주자가 코드를 잡을 때나 벤딩을 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준다. 자연스럽게 컴프레션 이펙트가 걸린듯한 마호가니 상판의 앰프 사운드는 ES2를 통해 더욱 선명하고 내추럴한 사운드를 내준다.

외관을 보면 어반 시에나 마감 처리(*GT Urban ASH에 사용되는 마감 방식)와 얇은 매트 피니쉬가 어우러져 마호가니 목재 본연의 나뭇결을 잘 살려준다. 유칼립투스 지판과 브릿지, 페그헤드 등이 GT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곡면 가공 처리된 바디가 편안함을 더해준다. 블랙탑 모델과 같이 메이플 로제트와 도트 인레이가 지판에 새겨져 있으며 니켈 튜너가 장착되어있고 에어로케이스가 같이 제공된다.

GT 611_E LTD

618_E로부터 영감을 받은 메이플 측후판 GT가 자신만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다.

Back and Sides: Solid Figured Big Leaf Maple
Top: Solid Sitka Spruce
Neck: Hard Rock Maple
Fretboard: Smoky Crelicam Ebony

한정판으로 출시된 611_E는 2022년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와 같은 기타이다. 스프루스



상판과 메이플 측후판의 그랜드 오케스트라 모델인 618_E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으며 작은 사이즈 덕분에 훨씬 편안하다.

2020년에 새롭게 디자인한 618_E는 앤티크 블론드 색상과 눈에 띄는 미션 인레이 추가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랜드 오케스트라 바디의 모양을 본떠 탄생한 GT이기에 618_E와 같은 조합의 기타를 출시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618_E처럼 큰 바

디에서 나오는 웅장한 사운드하고는 다르지만, C 클래스 브레이싱을 통한 사운드의 파워와 깊이는 편하게 연주하기 쉬운 GT바디를 더 흥미롭게 만든다.

“마치 그랜드 오케스트라의 큰 바디를 우리 위해 더 작게 만들어진 거 같다. 그리고 더 편하고 부드러운 연주감과 618의 아름다운 외관을 GT에 그대로 착안했다.” 라고 앤디는 말한다.

618과 같이 앤티크 블론드 처리로 잘 구워진 듯한 황금색의 후판이 메이플의 아름다운 결을 표현해주며 상판 가장자리까지도 음영처리가 되어있어 외관이 훌륭하다. 다른 세부사항들은 618과 마찬가지로 코아와 아이보로이드가 결합어진 메이플 바인딩과 자개 로제트 그리고 메이플 픽가드가 인상적이다. 유광 피니쉬가 적용됐으며 에어로 케이스가 같이 제공된다. **W&S**

NEW
FOR
'22

가까운 테일러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신모델들을 직접 시연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진과 상세 스펙은 TAYLORGUITARS.COM을 방문해 주세요.

[Sustainability]

Plastic Surgin'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할수록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글 : 스캇 폴(Scott Paul)

우드앤스틸(Wood&Steel) 2021년 제2호에서 언급한 것 처럼 테일러 기타도 플라스틱 사용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알면 알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 같다. 사실 이제 막 시작한 여정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알아낸 건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얘기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은 작년에 시설팀의 밥 소프가 우리가 사용한 스트레치 랩 쓰레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기타나 목재를 적재한 팔레트를 운반할 때 사

용하는 플라스틱 필름이다. 전세계 어느 창고에 가보더라도 스트레치 랩으로 팔레트를 고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새 소파를 사더라도 스트레치 랩으로 덮어 놓은 걸 보게 되고 이삿짐 트럭을 부르면 그들이 당신의 짐을 보호하기 위해 상자, 담요와 함께 그것을 판매할 것이다. 어쨌든, 어느 날엔가 밥 소프, 밥 테일러와 나는 테일러 캠퍼스의 한 구석에서 있었다. 쓰레기가 수거되기 전에 집하되는 곳이다. 우리는 어딘가에 매립될 쓰레기, 스트레치 랩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후, 밥 테일러는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쓰레기 수거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모두 그 지시에 동의했고 밥 소프가 쓰레기 더미를 옮겨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인 사내 주차장 한가운데에 쌓아두기로 했다. 나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지만, 몇 달 동안 사무실 창문으로 쓰레기 더미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시작됐다. 문제를 이해하려고 할수록, 해결책을 모색할수록, 혼란스럽고 우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The Global Plastic Problem 전 세계의 플라스틱 문제

고전 영화 '졸업'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등장하는데 배역 맥과이어는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방황하고 있는 주인공 벤자민 브래독(더스틴 호프먼)에게 한 마디를 던진다. "플라스틱에는 큰 미래가 있다. 생각해 보거라." 1967년 당시에는 플라스틱의 미래가 밝아 보였다. 경량 합성 또는 반합성 재료를 다양한 유용한 제품으로 성형할 수 있었다. 벤자민이 맥과이어의 조언을 무시한 지 불과 50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는 플라스틱 공해에 몸살을 앓고 있다.

The Recycling Myth 재생 신화

최근까지, 대다수의 전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플라스틱 문제의 실체를 대부분 잊고 있었다. 강력한 재생 프로그램이 재생 시스템의 상징인 뉘비우스 루프 기호처럼 플라스틱 폐기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잠깐 사용하고, 다시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 제품으로 바꾼다는 생각에 안주하고 있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렇다고 생각할 법하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일본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을 재활용하지 않고 대신 해외로 수출한다. 보이지 않으면 청결 일도 없는 것이다.

2017년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경종을 울렸다. 일반 대중들은 거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현재 소비하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 소비자로서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대부분이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고 폐기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의 경제적 가치는 마이너스이며, 이는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분류하고 처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페트병이나 HDPE병 모래주전자와 같은 고부가가치 플라스틱의 극히 일부만이 국내에서 재생되며 우리가 소비하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재활용 시설에 도달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설립된 NGO '라스트 비치 클린업'의 창립자이자 화학 엔지니어인 얀 델(Jan Dell)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9%만이 재활용을 위해 수집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그 중 절반 가량은 주로 사람의 손으로 분류되어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었다. 중국으로 운송된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결국 구입하고 사용한 다음, 버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버려지거나 태워진 것이다. 세계

경제포럼에 따르면, 플라스틱 포장의 32%는 결국 세계 어딘가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주로 바다, 강, 해안선 또는 대기 중에 떠다니한다고 한다. 또 다른 40%는 매립되었고 14%는 소각되었다고 한다.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자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하는 동안, 서방세계가 제품들로 가득 찬 컨테이너를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그 대가로 수출하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중국으로의 수송 운임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송 운임보다 훨씬 낮았다.

일단 중국에 도착하면,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몇몇 중국 회사들이 폐기물 일부를 선별하여 재판매를 위해 과립형태로 바꾸는 것이 이익이 되었다. 반대로 수익이 생기지 않는 폐기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재활용' 인프라가 이렇게 작동했지만 결국 중국 정부는 인간의 건강과 오염 등 무역에서 파생된 외적 비용부담을 깨닫고 201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게임이 끝났다고 통보했다. 물론 플라스틱 쓰레기는 여전히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 같은 곳으로 정기적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는 주로 사람의 손으로 분류되고 세척되어 재활용되고 있으며, 가치없는 쓰레기만 폐기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플라스틱 제품을 놀라운 속도로 소비하고 버리고 있지만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을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다. 생산자와 제조업체는 제품 사후 처리 또는 폐기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다.

틱을 사용한 다른 사례도 살펴보기 시작했다. 우리가 허구로부터 사실을 구별해내고 몇몇 명백한 모순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분명히, 주차 공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거대한 플라스틱 큐브는 테일러 회사 캠퍼스 전체에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대안을 찾기 위한 몇 가지 해결책의 시행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기타 넥 부품의 팔레트는 이곳 엘 커혼(EI Cajon)의 건물에서 건물로 지게차를 이용해 이동하고 엘 커혼과 멕시코 테카테(Tecate)의 공장 사이를 이동하는데 이 때 원래 스트레치 랍으로 팔레트를 고정하였으나 이제는 금속 바인딩이 있는 골판지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기타 부품이 담긴 컨테이너 이동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플라스틱 비닐 팩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예보니 기타 슬라이드의 포장 디자인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배송시 테일러웨어 제품(티셔츠, 모자, 커피 머그잔 등)을 보호하는 완충포장재로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 벌써 몇 년 전에 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옳았다.

Whatever Happened to the Big Plastic Cube? 커다란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에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스트레치 랍을 폐기하기 위한 가장 책임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여러 업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어떤 업체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또 다른 기업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까지 했다)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이를테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테일러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루파 밸리에 서 북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진 곳에 재활용 시설을 가지고 있는 프리제로라는 회사와 거래하고 있다. 프리제로는 스트레치 랍을 과립형태(펠릿)로 재생하여 캘리포니아 오로빌에 있는 시설로 배송한다. 오로빌 시설은 소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명 브랜드 상점들의 폴리백을 만들기 위해 펠릿을 사용한다. 프리제로의 오로빌 공장은 재활용 재료로 폴리백을 만드는 몇 안 되는 시설 중 하나이다.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운송되는 기타에도 폴리백이 사용되고 있다.)

여러 달 동안 스트레치 랍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상담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플라스틱을 구입할 수 밖에 없다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재활용 재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을 구입하도록 권장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재활용 플라스틱보다는 원재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이 더 저렴한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반 시설은 비참할 정도로 적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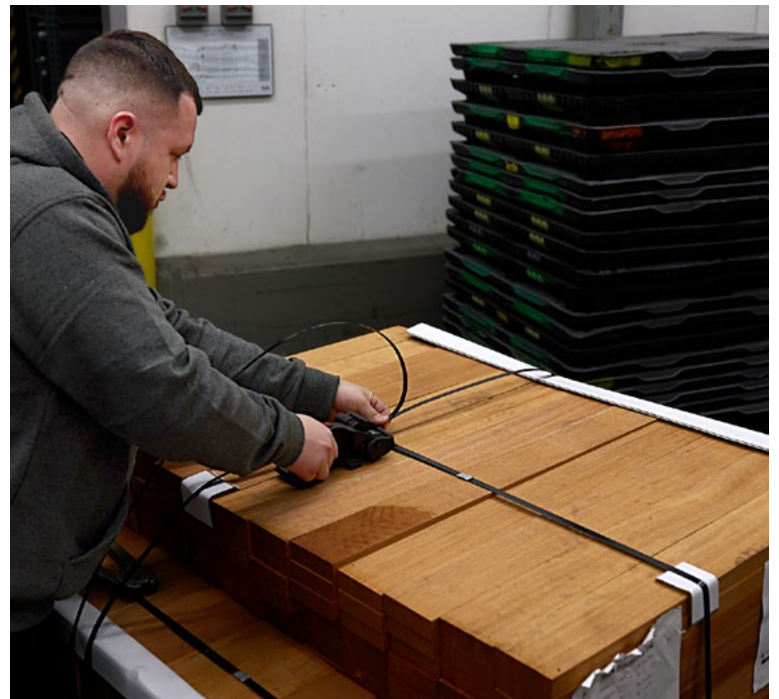
The Truth About the Polybags Taylor Uses

테일러가 사용하는 폴리백의 진실

우드앤스틸(Wood&Steel)의 오랜 독자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솔리드 우드 어쿠스틱 기타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손상의 원인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습한 환경 때문이라고 오랫동안 강조해왔다. 습도 조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당사에서 생산하는 기타와 나무 기타 케이스는 모두 습도가 조절된 환경에서 조립되고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기타를 종이박스에 담아 포장하기 전에 케이스(또는 각백) 자체를 한 번 폴리백에 넣음으로써 국내외 운송시 제품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있다.

기타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는 양호한 상태지만, 사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철제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트레일러 트럭으로 이동하고 화물선에 실리기도 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기타를 만지기 전에 이미 창고에 보관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기후와 습도가 크게 다른 지역을 이동할 수도 있다. 온도와 습도의 큰 변화, 특히 낮은 습도에 노출되면 나무가 수축(습도가 높을 때는 팽창)하여 사운드와 연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타가 손상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고품질의 기타는 제대로 관리만 하면 수 세대에 걸쳐 원형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까지 우리의 폴리백은 100% 원료 수지로 만들어졌지만, 한 때 사무실 창문 밖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더미 덕분에 우리는 60%의 재활용 성



기타넥 주변의 공간을 플라스틱 스트레치 랍을 사용하지 않고 카드보드지로 보강하고 있다.

분을 가진 폴리백으로 전환하고 있다.(곧 80%가 되기를 바란다).

요약하면, 페플라스틱 스트레치 랍(이제는 사용량이 적어졌지만)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루파 밸리에서 펠릿으로 재생되어 캘리포니아 오로빌로 운송되어 폴리백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기타보호를 위한 완충포장재로 이전에 사용하던 원재료 폴리백을 대체하여 이 재생 폴리백을 구입하고 있다. 그것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는 나아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고 주장하거나 기타라는 약기가 지속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a) 제조 공정 전체를 봐도 그렇지 않을 뿐더러 (b) 지속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끝이 없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공유하는 목적이 박수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솔직히 처리해야 할 플라스틱 문제가 너무 많아서 최근에는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 점은 사과드린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그에 대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아직 우리의 갈 길은 멀다. 우리는 윤이 좋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필름 재생업체인 프리제로를 찾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필름이 단지 깨끗한 한 종류의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는 것을 행운으로 여긴다. 그것은 또한 더미로 만들어 채집하기에 적당한 품질과 양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플라스틱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5년 동안 생산되었다. 개인 소

비자로서 우리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더 신중하게 소비하는데 노력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업에 책임을 묻고, 투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목격했을 때 환경보호를 촉구하는 것이다. 테일러 기타도 예외일 수 없다. 관심이 있다면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 된다. 우린 이미 진행 목록을 작성했다. 물론 테일러가 스트레치 랍과 폴리백을 사용한 최근 조치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완화책일 뿐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집을 청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이 있다. 지속가능성은 현재 진행 중인 여정이며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W&S**

스캇 폴은 테일러의 자연자원지속가능성 담당 디렉터이다.

“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플라스틱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5년 동안 생산되었다. ”

Meanwhile, Back at Taylor Guitars 다시 테일러 기타 애기로 돌아가서

몇 달 동안, 나는 사무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플라스틱 스트레치 랍 쓰레기 더미가 커져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 회사 뉴스레터에 기사를 써넣고, 리포트를 읽고, 다른 기업에 문의도 해보고, 환경 전문가인 그린피스의 존 호세바(John Hocoever)나 'The Last Beach Cleanup'의 안 델(Jan Dell)과도 상담했다. 공장에서 플라스

매각할 건지, 매립할 건지, 소각할 건지, 아니면 재활용할 건지. 재활용되면, 무엇으로 재활용되는지. 또 얼마나 멀리 운반되는 건지, 수출이 되는 건 아닌지. 우리는 미리 정해진 답을 찾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이고, 재활용이 매립지보다 분명히 더 낫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었다. 어느 쪽이든 큰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느냐, 돈을 받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The 2022 Taylor Guitar Guide

2022년 신모형을 포함한
테일러 기타의 전 라인업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면서 음악적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쿠스틱 기타를 찾으신다면 테일러는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테일러 기타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편안하고 즐거운 연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첨단 설계 및 정밀 제작공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최고의 넥'으로 이름 높은 테일러의 넥으로부터, 맑은 음색과 뛰어난 밸런스, 내구성과 멋진 외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테일러의 서비스 팀은 여러분들의 기타가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테일러 기타는 원재료인 목재가 선순환 구조에 바탕을 두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미 오래전부터 삼림보존 및 식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희는 '연주자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설계 및 제작기술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연주자들의 음악적 스타일에 맞는 여러가지 신모델 기타들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2022년에는 사운드와 감성적으로 가장 폭넓은 스펙트럼의 여러 모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일러 기타들 중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기타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최신판 '2022년 테일러 가이드'를 선보입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 측면인 기타의 바디 모양(Body Shapes)과 그에 따른 사운드적 특성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그 기타를 형성하고 있는 목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목재가 다른 목재와 조합을 이루었을 때 어떤 사운드를 들려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테일러 기타 라인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각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즈별 페이지에는 해당 시리즈의 목재구성, 외관(인레이, 바인딩 및 피니쉬) 등 상세 사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에디션의 경우) 시리즈별 페이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관련 비디오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taylorguitars.com을 방문하시면 전체 모델의 상세 사양, 특성, 사진과 동영상 등 세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기타를 찾는 과정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조금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타 찾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선택될 그 기타 역시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길로 들어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에 대한 강한 충동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늬와 색상이 아름다운 목재라든가, 평생 처음 경험하는 편안한 넥의 감각, 내 몸 전체를 전율케 하는 멋진 스트럼 사운드 등... 정말로 여러분들께 맞는 기타라면 "드디어 저의 주인이 오셨네요. 당장 저를 꺼내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라는 강렬한 임팩트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 기타 사이에 아주 특별한 교감이 형성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하든, 음악을 통해서 기쁨과 위안을 얻고 타인들과의 교감도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테일러 기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및 사양 그리고 단종여부는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one Terminology

기타 음색에 관한 용어학

기타 전문가처럼 말하기...

어택(Attack): 탄현하는 순간 바로 들려지는 음색 또는 사운드를 의미한다. 이는 곧 볼륨이 얼마나 빠르게 최고 수치에 도달하는가의 기준이기도 하다. 어택은 연주자가 사용하는 픽크(pick)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택'이라는 용어는 연주자가 탄현하는 강도를 의미를 하기도 한다. '어택'과 이어지는 중간부와 끝부분의 음에 관련한 용어로는 '서스테인'과 '소멸(Decay)'를 들 수 있다.

부미*(Boomy): 저음이 압도하는 또는 육중한 저음부의 사운드. 음색을 표현하는 용어는 아니다. 이 용어는 개인들의 취향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용어이다. 상당수의 연주자들이 저음이 풍성한 사운드를 선호하며 그 경우 대개 바디 사이즈가 큰 기타를 사용한다. 반대로 레코딩 세션에서는 저음이 과도할 경우 다른 주파수 대역 음들과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테일러 기타의 그랜드 피시픽 모델에 적용되는 V 클래스 브레이싱은 과도하게 '부미한' 사운드를 줄여주며, 그 결과 저음부의 사운드가 선명하면서도 파워풀하다. (*역자 주: 굳이 번역하자면 '병병거림' 또는 '봉봉거림'에 가장 가깝겠지만, 부정적 느낌의 소지가 있어 외래어표기로 대신하였음.)

밝은(Bright): 고음부가 강조된 사운드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저음부가 다소 취약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기름진(Buttery): 풍성하고 스무스한 사운드. 이 경우 여러 음들이 잘 섞여있는 한덩어리의 코드 사운드를 들려준다. 특히 음색이 온화하고 저음부가 강조되는 경우 '기름진' 사운드라고 할 수 있다. '기름진' 사운드 특성의 기타는 첫음과 지속되는 음색에 차이가 없어서, 강력한 어택과 또렷한 음을 내줘야 할 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셀링(Ceiling): 한계 영역. 이 용어는 음량에 대해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된다. 즉 기타 또는 특정 목재의 음량과 음색이 전달되는 범위를 의미한다.

복합적인(Complex): 세부적 음향들이 잘 살아있다는 의미. 즉 메인 주파수와 공명하는 다른 주파수의 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로즈우드의 경우 전주파수 대역에 걸쳐 오버톤이 뛰어나며 특히 고음부에서 그 특성이 더욱 도드라진다고 할 수 있다.

압축된(Compressed): 테일러 기타에서는 '압축(compression)'이라는 용어를 마호가니 같은 하드우드 탑 기타의 특성을 소개할 때 주로 사용한다. 특징음이 너무 강한 경우 디스토션이 심해져서 귀에 거슬리게 된다. 컴프레서는 각 대역의 음들이 적정 레벨을 넘지 않도록

와인 애호가 또는 미식가처럼 얘기하기, 기타연주자들은 글이나 동영상을 통해 특정 기타 사운드를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한다. 마치 와인 애호가나 미식가처럼... 우리는 실제 기타 사운드를 들어봄으로써 그 평가를 검증할 수 있다. 하지만 귀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마다의 청각능력과 감성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 용어에 대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밝은 음색'이라는 평가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부정적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마스터 빌더 앤디 파워스(Andy Powers)도 기타의 사운드가 어떻게든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가 사용하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앤디는 비록 한 음일지라도 그 음에는 여러 가지 음향적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록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은 하는 이펙터이다. 마호가니 탑은 컴프레서와 유사한 기능을 발휘한다. 소프트 우드 상판의 경우 약한 힘에도 쉽게 진동하며 다이내믹 레인지도 넓다. 반면에 마호가니 탑의 경우 밀도가 높아서 아주 강하게 탄현하더라도 음에 디스토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음역대에 걸쳐 고른 레벨의, 뛰어난 밸런스의 사운드를 들려준다. 하드우드 탑은 강력한 스트럼으로 인한 디스토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플레이어 또는 공연시 잘 다듬어진 픽업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에게 해결책이 될 것이다.

바삭바삭한(Crisp): 음색이 맑고 또렷하다는 의미이다. 종소리 같은 두툽한 울림이 배제되고 고음역대가 강조되는 사운드이다.

컷팅(Cutting): 공연 음향 셋팅이나 녹음 믹싱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다른 악기의 소리를 잘라내면서 치고 나오는 능력"이라는 의미이다. '컷팅'이라는 용어에는 선명함과 음량 그리고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의 도드라짐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크(Dark): 저음역의 음색이 도드라지는 특성 또는 고음역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성.

소멸(Decay): 서스테인이 사라지는 과정. 특정 음의 울림은 어느 정도 지속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음은 소멸하게 마련이다.

드라이(Dry): 목재의 성향이 특별하게 도드라지며 오버톤 절제되어 있는 사운드를 의미한다. 중음역의 포커싱이 뛰어난 마호가니의 특성을 소개할 때 우리는 자주 '드라이'하다고 표현한다.

펀더멘탈(Fundamental): 어떤 음의 정확한 주파수 또는 음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6번 스트링 E음의 펀더멘탈 주파수는 82.407Hz이다.

그르렁거림(Growl): 그르렁거리는 소리 또는 지극히 과장된 사운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큰 바디의 기타를 강하게 연주했을 때 발생한다.

하이파이(High-Fidelity): 맑고 또렷한 음색, 오버톤의 디테일이 살아있고, 디스토션 탄현을 없이 잘 받아주는 특성을 의미한다. 후에 나올 '피아노 소리(Piano-like)'와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고음부 오버톤이 종소리처럼 낭랑한 로즈우드 측후판 기타의 특성을 논할 때 이 '하이파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홍키(Honky): 콧소리같은 사운드를 의미한다. 중음역대만 들리고 저음부와 고음부가 지극히 미미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밋티(Meaty): 짙찬 저음을 바탕으로 중음의 성량이 풍부하다는 의미. '뚱뚱한(fat)', '짙찬(full)' 또는 '두툽한(thick)'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중음역(Midrange): 가정용 또는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이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일반적으로 20-20,000헤르츠(Hz)이다. 중음역대는 5번줄 A음의 주파수인 110Hz에서 시작하여 3KHz까지이다. 고음역대(트레블)는 그 이상의 주파수대역에 해당한다. 어쿠스틱 기타 모든 포지션의 음들이 어떤 주파수에 해당하는가를 측정해 보면 모두 중음역대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목소리가 중음역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 소리가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아노 건반의 중간 부분도 중음역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기타의 한 음은 특정 주파수만의 단순한 음이 아니다. 메인 주파수를 바탕으로 그것과 같이 공명하는 다른 주파수의 음들이 섞여 하나의 음으로 들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메인 주파수에 수반하여 생성 및 복합되는 다른 주파수의 음들의 많고 적음 그리고 강약에 따라 음색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음색의 차이는 음의 시작과 중간부 그리고 끝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복합적 측면 때문에 기타의 음색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음색을 평가할 때 자주 사용되는 몇가지의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기타를 선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 관한 용어도 있고, 감성적 용어도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 상당히 피상적이라는 점을 일러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은 기타의 음색과 사운드 나아가서 해당 기타의 음악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기타 사운드에 대해 독자적인 심미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머디(Muddy): '맑고 또렷함이 부족한'의 의미이다. 이 용어는 주로 저음부 또는 중음부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된다.

오버톤(Overtone): 음을 연주했을 때 메인 주파수와 하모니를 이루는 다른 주파수의 울림을 의미하며, 그러한 울림이 웨이브 패턴을 형성하면서 합쳐지는 현상까지도 포함된다. '블룸(bloom)'이라는 용어는 오버톤이 점점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줄어들면서 소멸(decay) 되는 음향적 효과를 의미한다. 오버톤은 메인음보다 약하게 들리지만 기타사운드의 풍성함과 복합성(complexity)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다.

피아노 소리의(Piano-like): 문자 그대로 '피아노 소리 같은'의 의미이다. 즉 그랜드 피아노 몸체를 기타 바디에 담은 후 탄현했을 때 날 법한 소리라고 할까? 그 사운드는 '종소리 같은(bell-like)', '하이파이(High Fidelity)'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며 음의 분리도 측면에서도 뛰어난 사운드여야만 한다.

프레즌스(Presence): 음의 또렷함과 분리도를 높이는 데에는 고음역대의 주파수가 작용한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얘기하는 경우, 그 목소리에는 '프레즌스'가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겨우 알 수 있겠지만, 맑고 또렷한 고음역결여로 인해 음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프레즌스'가 결합된 사운더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션(Projection): 특정 사운드가 얼마만큼의 추진력으로 어떻게 뻗어가는가에 관한 용어이다. 즉 사운드가 전달되는 거리라고 할 수 있으며, '원달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펀치력 좋은(Punchy): 사운드의 출력과 프로젝트성이 강력하다는 의미이며, 주로 중음역대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소리가 즉각적이면서도 때리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쿱드(Scooped): '감소된' 또는 '약해진'이라는 의미이며, 주로 주파수 파형을 봤을 때 중음역대가 움푹 파어진 모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 주파수 파형을 그 래픽 EQ의 중음 패드를 사용하여 좀 더 약화시키면 주파수의 그래프는 '스마일' 이미지의 입모양과 동일한 모양을 나타낸다. 음역별로 보면 저음역과 중음역이 충분한 반면 중음역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이다.

스파클(Sparkle): '고음부가 도드라지는' 사운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온화한(warm)'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코아나 메이플의 경우 고음역대가 톡톡 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징(zing)' 있으며 '짜릿한(zesty)'라는 용어도 고음역대가 스파클링한 느낌을 주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고음부의 서스테인이 좋아서 길게 울리는 경우 '쉬머링(shimmering)"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서스테인(Sustain): 음의 울림이 지속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스토틈(Throaty): 중음역대가 과도하게 묵직한 소리를 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간의 목소리가 중음역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생성된 용어로 추측된다.

온화한(Warm): 저음부가 약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사운드 또는 저음부의 존재감이 확연한 사운드를 의미한다. 굳이 표현하자면 목재로 된 구조물이 저음부는 물론 중,고음부까지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은 바로 아래에 나오는 '우디'라는 용어와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디(Woody): 에이징이 잘 되어 있는 드라이한 사운드이면서 지극히 독특한 풍미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으로 빈티지 마호가니 기타의 매력적인 사운드가 우디한 사운드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피(Woofy):** '부미'와 비슷한 의미인데, 저음부만 도드라지고 명료함이 부족한 사운드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머디(muddy)' 또는 '흐물흐물한(mushy)'의 느낌인데, 이러한 사운드는 다른 사운드에 방해가 되며 피드백을 초래하기도 한다. (**역자주: 개짖는 소리의 의성어 'woof'의 형용사)

Taylor Body Shapes

자신의 체형에 적합한 기타 바디 셰입을 찾는 방법

기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최초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기타의 바디 셰입 즉 자신에게 맞는 기타 바디의 모양을 찾는 것이다. 기타 바디 셰입은 바디를 이루고 있는 평면 곡선과 두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치들에 따라 사운드도 달라지고 체형에 따른 적합도도 달라진다. 자신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바디 셰입을 결정되었다면, 그 다음에 다양한 목재조합을 통해 생성되는 사운드를 들어보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목재조합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많은 바디 모양중 어떤 바디가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Neck-to-Body Relationship 넥의 접합과 줄길이

기타의 바디는 아니지만 기타의 바디와 접합을 이루는 넥은 기타 바디 셰입과 연관된 또 다른 중요요소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보아 두가지 부문이다. 첫째로 14프렛 또는 12프렛 접합 여부이며, 두 번째는 현장 즉, 너트에서 새들까지 줄의 길이이다. 현장은 바디 셰입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 따라 스트링 장력과 프렛 간격 그리고 연주자의 왼손이 어느 정도까지 뻗는지가 달라진다. 즉 연주자는 자신의 신체조건 및 왼손운지에 필요한 힘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넥과 현장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The Secret Sauce: Bracing 비법 소스 : 브레이싱

어쿠스틱 기타의 내부 브레이싱은 각기 다른 바디와 음향목간의 가교 또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스터 빌더 앤디 파워스(Andy Poewers)가 발명한 V 클래스(V-Class) 등 테일러의 최첨단 브레이싱 패턴을 통해 테일러의 모든 기타는 해당 바디 셰입과 목재조합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2018년 첫선을 보이며 전세계 어쿠스틱 기타팬들의 관심을 모았던 V 클래스 브레이싱은 발표 이후 기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문의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로 등록되어 있다. 이 브레이싱 패턴을 통해 상판이 줄의 진동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량과 서스테인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음정 부문에서도 현격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코드를 스트럼할 때 음들이 이루는 하모니가 완벽해졌다. 따라서 이 V 클래스 브레이싱은 서로 다른 바디스타일과 목재조합으로 완성되는 각 모델들의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작년에 처음 소개된 그랜드 씨어터 바디 모델에는 C 클래스(C-Class Bracing)브레이싱이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작은 바디이지만 풍성하고 두툼한 저음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Travel-size Body Shapes 여행용 기타

기존모델을 일정 비율로 축소한 작은 사이즈의 여행용 기타들이 있다. 그랜드 심포니 바디를 축소한 **GS Mini**를 (42페이지 참조) 비롯하여 드레드넛 사이즈를 3/4으로 축소한 **베이비 테일러** (43페이지 참조)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빅 베이비 테일러** 등 선택의 폭이 넓다.

Feel 느낌 또는 연주감

기타를 연주할 때 거부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바디 사이즈가 작거나 허리가 잘록하고 또 측판의 폭이 좁은 경우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이와 반대로 바디 사이즈가 큰 기타를 스트럼할 때 오른팔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앉아서 연주할 때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 측판의 폭도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테일러 기타 일부 모델에 적용되는 암레스트 베벨이나 접합부의 곡면가공 등 사양은 연주자에게 한층 편안한 느낌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Sound 사운드

어쿠스틱 기타의 바디는 줄의 진동을 증폭된 사운드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앰프라고 할 수 있다. 바디의 사이즈로 바디가 품을 수 있는 공기량을 알 수 있으며, 공기량에 따라 강조되는 주파수대역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작은 바디는 공기량이 적는데, 이로 인해 고음부가 두드러지고 또렷한 음색이 특징이다. 반대로 큰 바디의 기타는 깊이있는 사운드와 풍성한 저음 그리고 성량이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How does a cutaway affect tone?

컷어웨이가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

많은 사람들이 컷어웨이로 인해 기타의 성량이 줄어드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유저들이 감지하지 못 할 정도이다. 반면에 컷어웨이는 고음현의 하이 프렛 연주를 수월하게 해줌으로써 음악적 표현영역을 넓혀준다는 큰 메리트가 있다. 이런 메리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연주자들은 컷어웨이 모델을 선택할 것이고, 좌우 대칭 모양을 선호하거나 전통적 스타일을 고수하고자 하는 연주자들에게는 컷어웨이가 없는 모델을 추천한다. 테일러는 거의 모든 시리즈에서 컷어웨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단, 그랜드 퍼시픽과 그랜드 씨어터 바디의 경우 넌컷어웨이로만 출시된다. 또한 아카데미, GS Mini 및 베이비 시리즈에도 컷어웨이 모델이 없다.

Grand Theater (GT)

(끝자리가 '1'인 모델 ex : GT 811)

Body Length: 18-1/2"
Width at Waist: 9-5/16"
Width at Lower Bout: 15"
Depth from Soundhole: 4-1/4"
String Scale Length: 24-1/8"

GT는 바디의 곡선이 테일러에서 가장 큰 바디인 그랜드 오케스트라와 동일한 곡선을 이루고 있지만 그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축소하고, 쇼트 스케일로 설계된 바디 셰입이다. GT의 바디 크기는 GS Mini와 그랜드 콘서트의 중간 정도이다. 앤디 파워스가 새롭게 고안한 마법과도 같은 새로운 C 클래스 브레이싱에 힘입어 풀 사이즈 기타와 같은 깊고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주며,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연주하기 편하고 들고 다니기에도 편리하다. 팔러 바디 기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저들에게 GT는 사운드와 편안한 연주감 그리고 이동성 등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선택이 될 것이다.



Sound:

- 컴팩트한 사이즈이지만 사운드는 지극히 풍성하고 두툼하며 펀치력도 좋다.
- C 클래스 브레이싱으로 설계되어 있어 풍성하고 온화한 저음을 들려준다.
- 작은 바디이기 때문에 터치에 대한 민감도가 뛰어나다.

Feel & Fit:

- 컴팩트한 바디에 넥의 폭도 44mm이기 때문에 지극히 편안한 연주감을 제공한다.
- 24-1/8 인치의 쇼트 스케일로 설계되어 장력이 약한 편이라 코드와 딩을 수월하게 구사할 수 있다.
- 약한 장력과 상대적으로 좁은 프렛의 간격으로 인해 왼손 운지가 현격하게 편안해진다.

Grand Concert

(끝자리가 '2'인 모델 ex : 812)

Body Length: 19-1/2"
Width at Waist: 8-3/4"
Width at Lower Bout: 15"
Depth from Soundhole: 4-3/8"
String Scale Length: 24-7/8"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포근하게 안기는 느낌을 주며, 음의 분리도가 높은 편이고 터치에 대한 대응성도 뛰어나다. V 클래스 브레이싱으로 설계되어 성량과 서스테인 측면에서 지극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14 프렛 모델은 해상도가 좋고 활기 넘치는 사운드가 특징이라면, 12 프렛 모델은 넥의 느낌이 편하고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달콤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한편 GC 바디의 12현 모델의 경우 연주감이 지극히 편안하기 때문에 기존 12현 기타들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Sound:

- 맑고 초점이 명확한 음색, 특히 고음역대의 낭랑한 사운드가 매력적이고 절제되어 있는 배음이 특징이다.
- 14-프렛: 모던하고 음의분리도가뛰어나다.
- 12-프렛: 온화하고 달콤한음색이매력이다.
- 레코딩에 최적화되어 있다. 다른 악기와의 협연에서도 사운드가 잘 살아난다.

Feel & Fit:

- 컴팩트한 바디 프레임이라서 안았을 때 편안하고 친밀한 느낌이다.
- 24-7/8 인치 쇼트 스케일로 되어 있어 왼손 운지가 편안하다.
-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연주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뉘앙스의 폭이 넓다.

Grand Auditorium

(끝자리가 '4'인 모델 ex : 814)

Body Length: 20"
Width at Waist: 9-5/8"
Width at Lower Bout: 16"
Depth from Soundhole: 4-5/8"
String Scale Length: 25-1/2"

테일러의 플래그십 바디이며 편안한 연주감과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를 카버할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높다. 현대 어쿠스틱 기타 씬에서 실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GA 바디는 활기찬 음색에 해상도가 뛰어나며 전 음역대의 밸런스도 완벽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통상적 드레드넛 바디보다 허리부분이 좀더 잘록하게 되어 있는 바디쉐입에 기인한다. 핑거스타일든 스트럼 연주이든 모든 스타일의 연주를 잘 소화해내며, 레코딩 또는 스테이지에서의 연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범위가 넓다. 마치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동시에 폭넓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Sound:

- 한음한음 살아 있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음색과 뛰어난 밸런스가 장점이다.
- V 클래스 브레이싱으로 설계되어 프로젝션과 서스테인이 출중하다.
- 중음역대의 사운드가 지극히 매력적이다.

Feel & Fit:

- 중간 정도의 사이즈에 허리부분이 잘록해서 지극히 편안한 연주감을 제공한다.
- 공간을 꽉 채울 정도로 성량이 풍성하다.
-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와 음악에 잘맞기 때문에 실전용으로 최적의 바디이다.

Grand Pacific

(끝자리가 '7'인 모델 ex : 517)

Body Length: 20"
Width at Waist: 10-5/8"
Width at Lower Bout: 16"
Depth from Soundhole: 4-5/8"
String Scale Length: 25-1/2"

이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바디 쉐입 GP의 경우 통상적인 테일러 기타와는 조금 다른 음색을 갖추고 있다. 이는 전통적 어쿠스틱 기타에서 들을 수 있었던 지극히 온화하고 다소 채색된 듯한 느낌의 음색이다. 이 바디로 된 기타의 경우 스튜디오에서 레코딩 할 때 별도의 이펙터가 필요없을 정도로 근본에 충실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또한 V 클래스 브레이싱 설계에 힘입어 지극히 맑고 강력한 저음을 내준다. 그 결과 이 기타는 전통적 드레드넛의 매력을 갖추고 동시에 그랜드 오디토리엄처럼 상당히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나 음악에 잘 어울린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Sound:

- 음색이 온화하며, 음표가 둥글고 폭넓게 느껴지면서 지극히 복합적 사운드를 들려준다.
- 전음역대에 걸쳐 사운드가 맑고 파워풀하다.
- 기존의 드레드넛 기타와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구사할 수 있다.

Feel & Fit:

- 드레드넛을 고수해 온 연주자들에게 테일러의 편안한 연주감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 컷어웨이 사양이 없다.
- 음악적으로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GA에 이은 또 하나의 실전용 기타라 할 수 있다.

Dreadnought

(끝자리가 '0'인 모델 ex : 210)

Body Length: 20"
Width at Waist: 11-1/16"
Width at Lower Bout: 16"
Depth from Soundhole: 4-5/8"
String Scale Length: 25-1/2"

테일러 기타의 바디 쉐입중 가장 전통적 스타일인 드레드넛 바디. 전통적 바디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사운드와 밸런스 측면에서 (더불어 편안한 느낌의 넥과 함께)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다. 드레드넛은 허리의 곡선이 맞닿아서 파워풀한 저음, 매력적인 중음 그리고 빛나는 듯한 고음을 내준다. 이 바디에는 전통적인 X-브레이싱이 적용되고 있으며, Academy와 100, 200 시리즈 모델로 출시된다.



Sound:

- 온화한 음색. 파워풀한 저음부, 펀치력 좋은 고음부가 특징. 이른바 'Modern Vintage'.
- 중음부의 깊이있는 음색이 특징이다.
- 다른 악기 또는 보컬이 자리할 수 있는 사운드적 공간이 넓은 편이다.

Feel & Fit:

- 허리 라인 다소 밋밋하기 때문에 무릎에 올려놓을 경우 높이가 높다.
- 전통적 외관과 사운드라서 블루그래스 등 주로 전통적 스타일의 음악에 맞는다.
- 플랫피킹 또는 강력한 어택의 연주에 잘 맞는다.

Grand Symphony

(끝자리가 '6'인 모델 ex : 816)

Body Length: 20"
Width at Waist: 9-7/8"
Width at Lower Bout: 16-1/4"
Depth from Soundhole: 4-5/8"
String Scale Length: 24-7/8"

그랜드 오디토리엄보다 조금 큰 바디인 그랜드 심포니 모델은 V 클래스 브레이싱으로 제작되며 최근에는 또 하나의 혁신적 설계방식인 사운드포트 컷어웨이(Soundport Cutaway)가 적용되고 있다. 이 두가지 새로운 설계방식에 힘입어 심포니와 하이파이 느낌의 지극히 독특한 사운드를 구현하고 있다. 사운드가 사방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공간감과 리버브가 출중하며 서스테인도 훌륭하다. 쇼트 스케일에 라이트 게이시스트링으로 세팅되어 있는 GS는 새로운 사운드를 추구하는 수준높은 연주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Sound:

- 피아노처럼 풍성한 사운드는 심포니를 연상케 할 정도로 그 스케일이 거대하다.
- 사운드포트 컷어웨이는 확장성이 좋고 서라운드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준다.
- 기타의 음이 울리는 동안 마치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Feel & Fit:

- 그랜드 오디토리엄보다 조금 큰 바디라서 폐활량이 크다.
- 현장 24-7/8 인치에 라이트 게이시로 세팅되어 있어 연주감이 편하고 대응성도 뛰어나다.
- 표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솔로 어쿠스틱 기타 연주자들에게 잘 맞는다.

Grand Orchestra

(끝자리가 '8'인 모델 ex : 818)

Body Length: 20-5/8"
Width at Waist: 10-3/8"
Width at Lower Bout: 16-3/4"
Depth from Soundhole: 5"
String Scale Length: 25-1/2"

테일러 라인업중 가장 큰 바디인 그랜드 오케스트라는 이전의 점보 바디에서 진화된 바디이다. V 클래스 브레이싱이 적용된 결과 바디의 진동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파워풀한 사운드, 깊은 울림 그리고 풍부한 서스테인을 구현하고 있다.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뛰어나며, 엄청나게 폭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를 훌륭하게 소화해낸다. 현재 GO 바디로 된 모델은 스프루스/로즈우드와 스프루스/메이플의 목재구성으로 출시되고 있다.



Sound:

- 모든 기타를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사운드. 전음역대에 걸쳐 밸런스가 뛰어나다.
- 큰 바디의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뛰어나다.
- 폭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갖추고 있어 다양하고 섬세한 그리고 큰 스케일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제공한다.

Feel & Fit:

- 바디 사이즈가 크고 측면도 두꺼운 편이지만 드레드넛보다 허리가 잘록하기 때문에 편하게 연주할 수 있다.
- 대응력이 뛰어나다. 약한 탄현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훌륭하게 반응한다.
- 지극히 깊고 두툼한 음색을 선호하는 연주자 또는 다운 튜닝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 강력 추천.

테일러 각 바디 스타일들의 고유한 음향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 에디션에 방문해주세요.

Taylor Tonewoods

목재 구성에 따른 사운드 특성

수많은 음향목의 사운드적 특성을 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니 어렵다기보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측후판과 상판, 넥과 지판 그리고 브릿지와 브레이싱에 이르기까지 기타의 각 파트에 사용되는 목재는 해당 기타의 사운드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큰 적든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심오한 설계를 바탕으로 초고도의 정밀 기술로 제작되는 기타에서 각 파트에 사용되는 목재는 그저 작은 변수에 불과할 뿐이다. 목재는 요리사에게 주어진 음식재료 같은 것이다. 같은 음식재료라고 하더라도 셰프와 요리에 따라 그 맛과 감동이 천차만별이기 마련이다. 그렇듯이 동일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어떤 모양의 기타를 어떤 제작가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사운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지의 여러 글에서 테일러의 마스터 빌더 앤디 파워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기타의 빌더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기타를 찾고자 한다면 기타의 재료인 음향목에 대한 지식과 함께 그 기타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빌더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타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인데, 뛰어난 설계는 음향목의 사운드적 특성을 완벽하게 살려주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기타는 음악적 완성도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본지에서 정제된 사운드와 높은 음악성을 구현해주는 V 클래스 또는 C 클래스 브레이싱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사항은 목재의 수급과 관련한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기타의 음향목이 특정 목재에 편중되는 경우 그 목재는 머지않아 고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목재 그리고 목재 등급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음향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바꿔 말하자면 로즈우드나 마호가니 또는 화려한 무늬의 코아로 제작된 기타만을 고집하기보다 (앤디 파워스의 뛰어난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새로운 음향목이 사용된 기타의 음악성과 미학을 느껴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목재의 음향적 특성과 그로 인한 기타의 사운드의 독특한 뉘앙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에 마스터 빌더 앤디 파워스의 도움으로 그가 기타를 제작할 때 고려하는 가장 핵심적 특성과 각 목재의 음색 특성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을 소개한 바 있다. 그는 “기타를 연주할 때 연주자가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특성”이라고 덧붙였다.

1. Frequency Range 주파수 대역

EQ 그래프를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음향목의 음색을 논할 때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의 울림 성향에 (예를 들어 ‘저음이 풍성하다’든가 또는 ‘중음역대가 두드러진다’ 등) 대해 평가를 하게 된다. 실례로 로즈우드의 경우 저음역대와 고음역대가 도드라지며, 스프루스의 경우에는 고음역대에서 매력적인 소리를 내준다고 할 수 있다.

2. Overtone Profile 배음의 성향

우측 배음성향 도표의 왼쪽으로 갈수록 태생적으로 (여러가지의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 배음의 성향이 강해진다. 즉 기타 사운드보드에서 발생하는 초성과 줄의 진동에 따른 후판의 배음뿐 아니라 그 목재 자체가 갖고 있는 오버톤이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례로 로즈우드의 경우 종소리 같이 낭랑하고 풍성한 배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 도표에서 왼쪽으로 치우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목재

본연의 배음은 지극히 절제되어 있으면서 상판의 초성과 스트링 진동 사운드에 충실한 배음의 성향을 의미한다. 그러한 성향의 대표적인 목재 마호가니인데 이 경우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초점이 잘 잡힌 사운드가 특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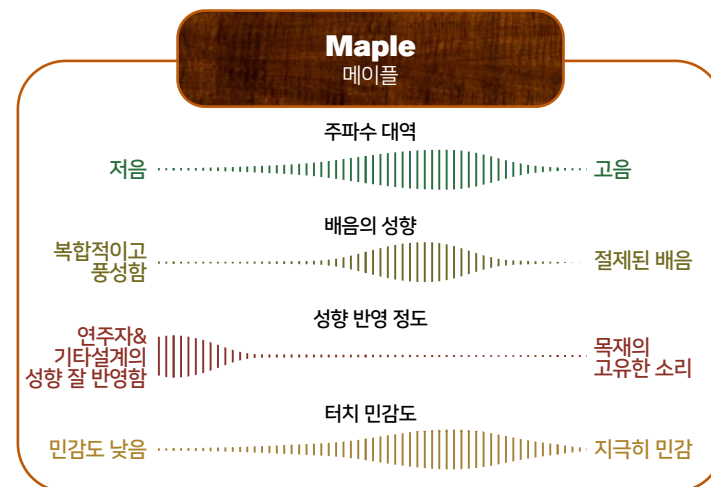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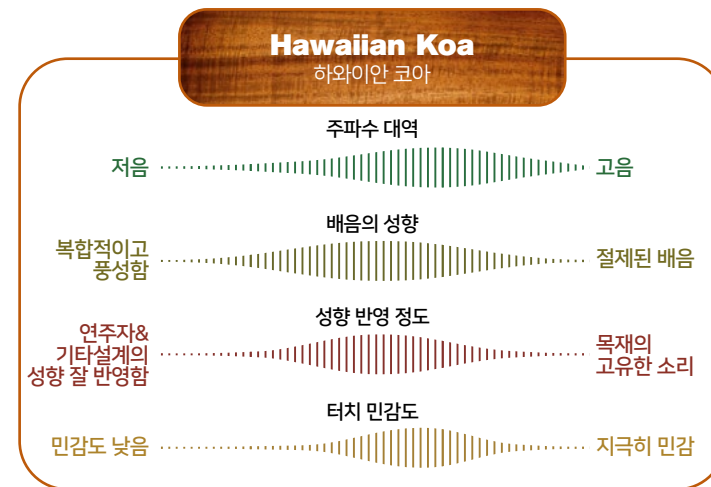
3. Reflectivity (연주자 또는 바디 스타일) 성향 반영도

이 항목은 연주자의 연주 성향 또는 기타바디 디자인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목재 자체의 사운드적 성향만을 드러내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위의 배음의 성향 도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면 메이플의 특성으로는 연주자의 연주스타일을 잘 반영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메이플의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음색을 통해 연주자의 연주스타일 또는 기타 바디 설계의 특성 등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이플 바디의 기타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연주자 또는 바디의 설계에 따라 사운드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로즈우드의 경우 연주자의 연주스타일 또는 바디 디자인 등에 상관없이 독특한 사운드적 특성과 풍미를 일관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4. Touch Sensibility 터치에 대한 민감도

이 항목은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다. 즉 연주자들은 어떤 기타가 얼마나 민감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터치에 대응하는지 잘 느낄 수 있다. 이는 목재마다 밀도와 강도 그리고 중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도표에서 오른쪽 끝은 아주 가벼운 터치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열려있고 공간감이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경우이다. 반대로 왼쪽 끝은 강한 어택으로 연주할 때 비로소 밀도가 높고 직진성이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경우이다. 이 항목은 주로 상판의 사운드적 성향을 논할 때 기



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씨더 상판의 경우 가볍고 터치에 대한 민감도가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섬세한 터치로 연주하는 핑거스타일 연주자들이 선호하는 목재이다. 반면에 러츠 또는 애디론덱 스프루스의 경우 강도가 높고 중량이 크기 때문에 터치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강력한 탄현으

로 연주하는 경우 상당히 편치력이 좋은 멋진 사운드를 들려준다. 하드우드에서 속하는 마호가니 또는 코아 상판의 경우 터치에 대한 민감도가 지극히 낮기 때문에 강력하게 연주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절제된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내츄럴 컴프레서'의 역할을 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olid vs. Layered Woods 솔리드 vs 레이어드 목재

기타에 사용되는 목재는 크게 원목 또는 합판으로 구분된다. 원목 즉 솔리드 우드로 제작된 기타는 지극히 복합적 음색을 내준다는 점과 해를 거듭할수록 사운드가 좋아지는 즉 에이징이 된다는 점이 매력이다. 모

든 테일러 기타의 상판에는 솔리드 우드 사운드보드가 사용된다. 합판 즉 레이어드 우드는 주로 측후판에 사용되는데 (200 시리즈 이하 모델) 중간 코어우드 앞뒤면에 솔리드 목재가 접합된 3겹구조의 목재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타팬들이 선호하는 목재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갈될 우려가 있는데, 이 레이어드 우드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우려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레이어드 우드의 경우 중간의 코어우드와 앞뒤면 솔리드우드의 나뭇결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형이나 파손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Back and Side Woods 측후판 목재

측후판 목재로는 주로 하드우드가 사용된다. 구조적으로 기타의 전반적 프레임의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견고함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음향적 측면으로는 주로 각 음역대의 배음과 서스테인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바꿔 말하면 어쿠스틱기타의 베이스와 중음 그리고 고역을 조절해 주는 내츄럴 톤 컨트롤러로 작용하며 각 목재마다 독특한 오버톤을 갖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Top Woods 상판 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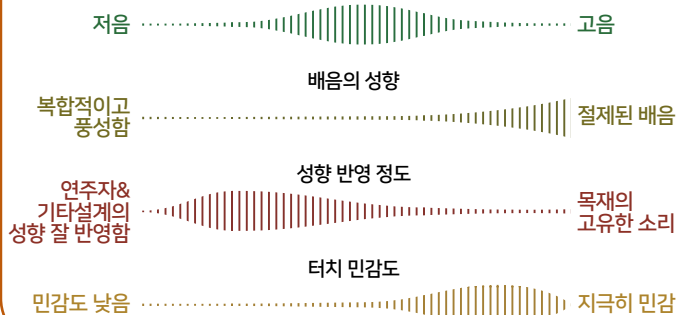
상판은 '사운드보드'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기타의 음색을 나타내주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상판에는 주로 소프트우드가 사용되며 침엽수과에 속하는 나무들이다. 대표적인 목재가 스프루스와 씨더인데 가볍지만 비교적 단단한 편이며 탄성이 좋아 작은 힘에도 쉽게 진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가지 목재 모두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으며 독특하고 매력적인 음색을 지니고 있다. 테일러에서는 마호가니와 코아 같은 하드우드도 상판목재로 사용하고 있다. 전자들에 비해 밀도가 높아서 진동에 좀 더 강한 힘이 필요하며, 그 진동은 상대적으로 서서히 발생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과도한 힘으로 연주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반응하기 때문에 일명 "내츄럴 컴프레서"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음의 포커싱이 명확하고, 배음은 상당히 정제되어 느낌을 준다. 특히 앰프를 통해 나오는 사운드에서 그 진가가 발휘된다.

스프루스 또는 씨더 등
상판 목재의 사운드 특성
인포그래픽은
디지털 에디션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Mahogany

마호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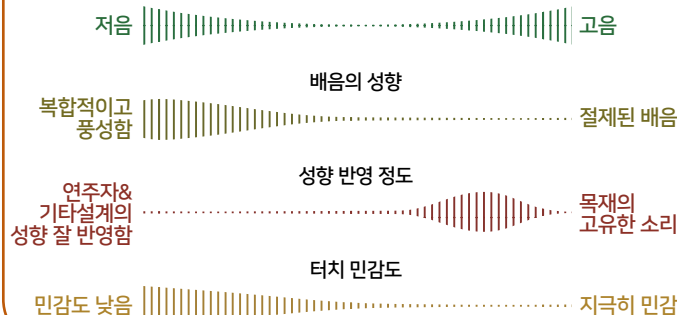
주파수 대역



Ovangkol

오방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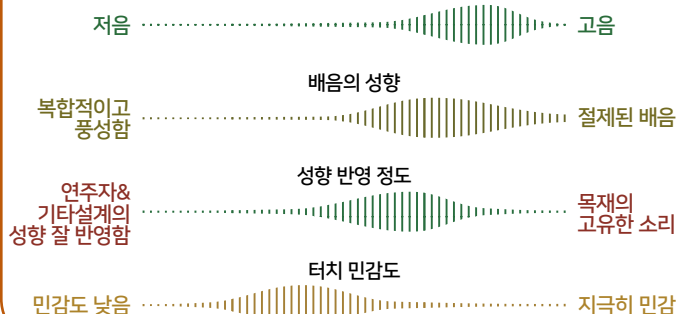
주파수 대역



Sapele

사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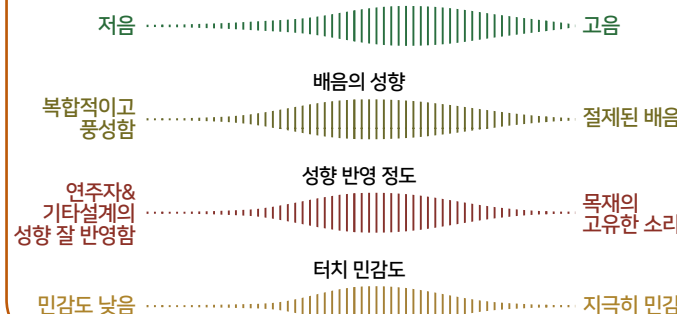
주파수 대역



Blackwood

블랙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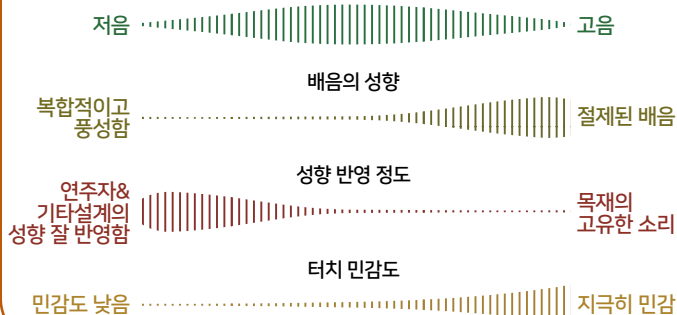
주파수 대역



Urban Ash™

어반 애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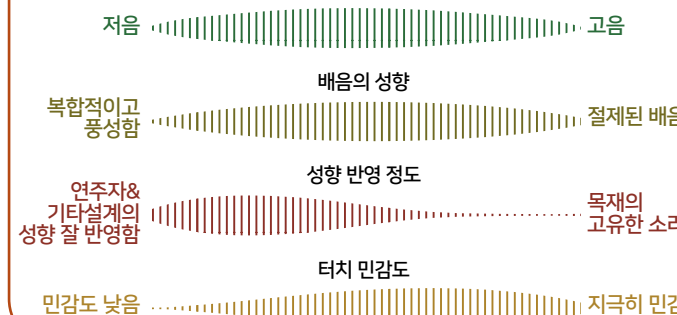
주파수 대역



Walnut

월넛

주파수 대역



The Taylor Line at a Glance

테일러 기타 전체 시리즈의 개요 및 목재 구성

All-Solid-Wood Guitars

상판 및 측후판 모두 솔리드 우드로 제작된 기타로 지극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며 해를 거듭할수록 소리가 좋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 Presentation Series** { **Back/Sides:** Honduran Rosewood
Top: Sinker Redwood
- Koa Series** { **Back/Sides:** Hawaiian Koa
Top: Hawaiian Koa or Torrefied Sitka Spruce (Builder's Edition)
- 900 Series** { **Back/Sides:** Indian Rosewood
Top: Sitka Spruce or Lutz Spruce (Builder's Edition)
- 800 Series** { **Back/Sides:** Indian Rosewood
Top: Sitka Spruce or Lutz Spruce (Builder's Edition)
- 700 Series** { **Back/Sides:** Hawaiian Koa or Indian Rosewood (Builder's Edition 717e)
Top: Hawaiian Koa or Torrefied Sitka Spruce (Builder's Edition 717e)
- 600 Series** { **Back/Sides:** Figured Big Leaf Maple
Top: Torrefied Sitka Spruce or Sitka Spruce (618e)
- 500 Series** { **Back/Sides:** Mahogany
Top: Mahogany, Cedar (GC, GA) or Torrefied Sitka Spruce (Builder's Edition)
- 400 Series** { **Back/Sides:** Indian Rosewood
Top: Sitka Spruce
- 300 Series** { **Back/Sides:** Sapele (Spruce Top) or Mahogany (Mahogany Top)
Top: Sitka Spruce or Mahogany
- GT Series** { **Back/Sides:** Hawaiian Koa (GT K21e), Indian Rosewood (GT 811e), Urban Ash (GT/GTe Urban Ash), American Walnut (GTe Blacktop) or Mahogany (GTe Mahogany)
Top: Spruce, Hawaiian Koa (GT K21e) or Mahogany (GTe Mahogany)
- American Dream Series** { **Back/Sides:** Ovankol (Spruce Top), Sapele (Mahogany Top) or Maple (Flametop)
Top: Spruce, Mahogany or Maple (Flametop)

Layered-Wood Guitars

3겹으로 이루어진 레이어드 우드 측후판과 솔리드 우드 상판의 목재 조합으로 제작된 기타입니다.



- 200 DLX Series** { **Back/Sides:** Layered Koa, Rosewood or Maple
Top: Sitka Spruce or Koa
- 200 Series** { **Back/Sides:** Layered Koa or Rosewood
Top: Sitka Spruce
- 100 Series** { **Back/Sides:** Layered Walnut
Top: Sitka Spruce
- Academy Series** { **Back/Sides:** Layered Sapele
Top: Sitka Spruce or Lutz Spruce (Nylon)
- GS Mini** { **Back/Sides:** Layered Sapele, Koa, Rosewood or Maple
Top: Sitka Spruce, Mahogany or Koa
- Baby Series** { **Back/Sides:** Layered Walnut, Sapele or Koa
Top: Sitka Spruce, Mahogany or Koa

Electric Guitars

Hollowbody or Semi-Hollowbody

- T5z Series** { **Top:** Figured Koa, Indian Rosewood, Figured Maple, Sassafras, Sitka Spruce or Mahogany
- T3 Series** { **Top:** Layered Figured Maple

Custom Guitars

커스텀 기타는 고객의 개인적 취향 및 선호도를 반영하여 제작되는 기타입니다. 프리미엄 등급의 음향목은 물론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외관 옵션까지 다양한 사양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A Guide to Taylor Acoustic Model Numbers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의 경우 100시리즈에서부터 900시리즈까지 번호에 따른 시리즈와 베이비, GS mini, 아카데미, 어메리칸 드림, 코아 등 앞쪽에 이름이 붙여진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어떤 시스템을 기준으로 모델 번호가 정해지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814ce

814ce **The first digit** 첫번째 숫자 (또는 글자): 시리즈 인식 번호 (814ce의 경우 800시리즈에 해당) 각 시리즈는 특징의 목재구성과 인레이, 바인딩, 로제트 등 디자인 사양에 따라 제작됩니다.

814ce **The second digit** 두 번째 숫자: 두가지 사항에 대한 인식 번호. 즉 6현 또는 12모델의 구별과 소프트우드(스프루스 또는 씨더) 상판 또는 하드우드(마호가니 또는 코아) 상판 모델 대한 구별 기준입니다.

6-string Models: 6현 모델

- 두번째 숫자가 1인 경우 소프트우드 상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씨더 상판의 514ce)
- 두번째 숫자가 2인 경우 하드우드 상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마호가니 상판의 524ce)

12-string Models: 12현 모델

- 두번째 숫자가 5인 경우 소프트우드 상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스프루스 상판의 352ce)
- 두번째 숫자가 6인 경우 하드우드 상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마호가니 상판의 362ce)

814ce **The third digit** 세 번째 숫자: 아래의 숫자체계 따른 바디 웨임을 의미합니다.

- 0 = Dreadnought (e.g., 210ce)
- 1 = Grand Theater (e.g., GT 811e)
- 2 = Grand Concert (e.g., 712ce)
- 4 = Grand Auditorium (e.g., 414ce)
- 6 = Grand Symphony (e.g., 816ce)
- 7 = Grand Pacific (e.g., 517e)
- 8 = Grand Orchestra (e.g., 618e)

814ce **“c”** 컷어웨이 사양으로 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814ce **“e”** 픽업이 장착된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밖의 다른 인식 문자

추가 문자가 뒤에 붙는 경우 이 문자에 특별사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일론 스트링 모델의 경우 (예를 들면 812ce-N)

시리즈내에서 선택적 측후판 사양

(예를 들면 214ce-K의 경우 코아 측후판을 의미합니다)

피니쉬 색상 (예를 들면 214ce-SB는 썬버스트 피니쉬, 517 WHB는 와일드 허니 버스트, 214ce-BLK는 블랙을 의미합니다.)



BUILDER'S EDITION
COLLECTION

빌더스 에디션 컬렉션에는 다양한 모델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 공통된 특징은 앤디 파워스가 기타제작가로서 견지해 온 철학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사운드와 편안한 연주감'에 있어 연주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빌더스 에디션 시리즈는 2018년 발표된 V 클래스 브레이싱(V-Class Bracing)에 보다 강력한 임팩트를 부여하기 위해 출시된 컬렉션인데, 이후 혁신적인 12현 그랜드 콘서트 모델에서부터 2종의 프리미엄 그랜드 퍼시픽 모델, 창의성인 돋보이는 사운드 포트컷어 웨이 사양의 그랜드 심포니에 이르기까지 9개 모델이 있다.

각 모델에는 한 차원 높은 설계와 기술력 그리고 장인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베벨 컷어웨이와 암레스트 그리고 컴파운드 카브드 넥 등의 프리미엄 사양 덕분에 연주자들은 한층 더 편안하게 연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사운드적 측면에서는 모델들 모두 저마다 개성 넘치는 음색을 갖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Builder's Edition 717 WHB



Builder's Edition 816ce

Available Models

- Builder's Edition K14ce | Builder's Edition K24ce
- Builder's Edition 912ce | Builder's Edition 912ce WHB
- Builder's Edition 816ce | Builder's Edition 717e
- Builder's Edition 717e WHB | Builder's Edition 652ce
- Builder's Edition 652ce WHB | Builder's Edition 614ce
- Builder's Edition 614ce WHB | Builder's Edition 517e
- Builder's Edition 517e WHB | Builder's Edition 324ce



Builder's Edition 517 WHB, Builder's Edition 717



사진, 비디오 콘텐츠, 모델 설명 및 전체 사양을 포함한 모든 Builder's Edition 모델에 대한 상세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taylorguitar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uilder's Edition K24ce



Builder's Edition K14ce



Builder's Edition 614ce WHB



Builder's Edition 652ce



Builder's Edition 912ce



■ PS14ce

PRESENTATION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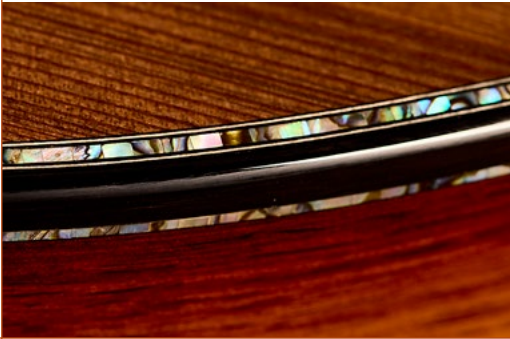
최고급 톤우드, 딜릭스 컴포트 그리고 화려한 외관 등 최고를 지향하는 모든 요소들의 결합으로 완성되는 프레젠테이션 시리즈... 이 시리즈는 테일러 기타의 세련미를 드러내는 궁극의 쇼케이스이다. 온두라스 로즈우드, 싱커 레드우드 등 프리미엄 톤우드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플레이어 친화적 연주 편의성까지 모든 면에서 테일러의 뛰어난 장인 정신이 담겨져 있다. 또한 외관적 측면에서도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정교하고 화려한 인레이 사양이 반영되어 있다. 대를 물려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희소성이 높고 가치 있는 기타를 찾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Specifications

- Back/Sides:** Honduran Rosewood
- Top:** Sinker Redwood (Optional Adirondack Spruce)
- Finish:** Gloss 6.0 with Shaded Edgeburst (back and sides only)
- Rosette:** Single-Ring Paua with Bound Soundhole
- Fretboard Inlay:** Paua California Vine
- Body Edge Treatment:** Crelicam Ebony Binding w/ Paua Edge Trim
- Premium Features:** Ebony Radius Armrest, Paua Trim (Top, Back, Sides, Fretboard Extension, Fretboard, Peghead, Armrest), Ebony Backstrap, Peghead/Bridge/Pickguard Inlays, Antique Gold Gotoh 510 Tuners (12-Fret Models: Nickel Slot-head Tuners with Ebony Buttons)

Available Models

PS14ce | PS12ce | PS12ce 12-Fret



MMR
GUITAR of the YEAR

V-Class Bracing

KOA Series

아름다운 나뭇결과 개성있는 사운드를 겸비한 슈퍼스타 톤우드 하와이언 코아는 테일러가 오래전부터 즐겨 사용해온 음향목이다. 코아의 사운드 특성은 선명한 고음과 활기찬 중음역대 그리고 온화한 저음역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테일러는 엄선과정을 거쳐 소수의 코아 모델만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토러파이드 스프루스(Torrefied Spruce) 상판의 K14ce와 올코아 모델인 K24ce 등 2종의 프리미엄 빌더스 에디션 모델이 자리잡고 있다.

그 외로 컴팩트한 사이즈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GT K21, 올코아 12 프렛 그랜드 콘서트(Grand Concert) 그리고 사운드포트 컷어웨이(Soundport Cutaway)가 돋보이는 그랜드 심포니(Grand Symphony)모델 등이 있다. 우드 바인딩 등 목재로 된 디테일링과 은은한 그라데이션의 웨이디드 옛지버스트 등도 코아 기타의 외관을 한층 더 빛나게 해주고 있다.

Specifications

- Back/Sides:** Hawaiian Koa
- Top:** Hawaiian Koa
- Finish:** Gloss 6.0 with Shaded Edgeburst (Entire Guitar)
- Rosette:** Single-Ring Maple with Koa/Black Purfling
- Fretboard Inlay:** Maple Spring Vine
- Body Edge Treatment:** Pale Non-Figured Maple Binding
- Premium Features:** Antique Gold Gotoh 510 Tuners (12-Fret Models: Nickel Slot-head Tuners with Ebony Buttons), Black/Koa/Maple Top Purfling, Maple Peghead/Fretboard Purfling



Available Models

- GT K21e*
- K22ce | K22ce 12-Fret
- Builder's Edition K14ce*
- Builder's Edition K24ce* | K24ce
- K26ce

**기타 모델의 상세 스펙은 taylorguitar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Builder's Edition K24ce



Builder's Edition K14ce



■ 914ce

900 Series

900시리즈는 고전적 목재 구성인 로즈우드 측후판/스프루스 상판 조합의 기타가 들려 줄 수 있는 최고의 다이내믹 사운드를 완벽하게 구현해주는 모델군이다. 특히 V 클래스 브레이싱(V-Class Bracing)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성량과 서스테인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로즈우드의 특유의 풍부한 오버톤의 충실도를 향상시켜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편안한 연주감과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수려한 외관까지 모든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곡면형 암레스트, 고토(Gotoh) 510 초정밀 튜닝머신, 에보니 바인딩, 자개 트리밍과 코아 퍼플링, 어센션(ascension) 인레이, 픽가드 없는 상판 등이 기본 사양이다. 한편 좀 더 색다른 차원의 편의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 빌더스 에디션 912ce 추천한다. 바디와 넥의 모서리 곡면 가공, 베벨 컷어웨이 등 인체공학적 설계가 돋보이는 모델이다.

Specifications

Back/Sides: Indian Rosewood

Top: Sitka Spruce

Finish: Gloss 3.5

Rosette: Single-Ring Paua with Bound Soundhole

Fretboard Inlay: Abalone/Mother-of-Pearl Ascension

Body Edge Treatment: West African Ebony Binding with Koa Purfling

Premium Features: Ebony Radius Armrest, Paua/Koa Trim (Top, Back, Sides, Fretboard Extension, Fretboard, Peghead, Armrest), Ebony Backstrap, Antique Gold Gotoh 510 Tuners (12-Fret Models: Nickel Slot-head Tuners with Ebony Buttons)

Available Models

912ce | 912ce 12-Fret | Builder's Edition 912ce*

Builder's Edition 912ce WHB* | 914ce

*기타 모델의 상세 스펙은 taylorguitar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14ce



814ce



GT 811e

800 Series

테일러 800시리즈는 마스터 빌더급 제작진의 투철한 장인정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 등급의 음향목에 세련된 외관 사양이 더해져 완성된다. 하이 피델리티 사운드와 뛰어난 밸런스 그리고 편안한 연주감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는 명불허전의 베스트 셀러 시리즈이다. 90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을 통해 검증된 인디언 로즈우드와 시트카 스프루스의 음향목 조합을 이루고 있다. 풍성한 사운드와 독특한 오버톤을 들려주는 인디언 로즈우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음부가 약하기 때문에 중음역에 해당하는 보컬을 한층 더 빛나게 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또한 V 클래스 브레이싱(V-Class Bracing)으로 제작되면서 성량과 서스테인의 측면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외관상 정제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800시리즈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GT 모델에서부터 큰 사이즈의 그랜드 오케스트라(Grand Orchestra)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포진하고 있다.

Specifications

Back/Sides: Indian Rosewood

Top: Sitka Spruce

Finish: Gloss 4.5 (818e: Gloss 6.0 with Antique Blond Top)

Rosette: Single-Ring Abalone with Bound Soundhole (818e: Single-Ring Paua with Bound Soundhole)

Fretboard Inlay: Mother-of-Pearl Element or Mother-of-Pearl/Ivoroid Mission (818e)

Body Edge Treatment: Pale Non-Figured Maple Binding

Premium Features: Rosewood Radius Armrest (812ce, 812ce 12-Fret, 814ce), Rosewood Top Trim (818e: Koa/Ivoroid Top Trim), Smoked Nickel (812ce, 814ce) or Nickel (818e) Tuners (12-Fret Models: Nickel Slot-head Tuners with Ebony Buttons; Nylon Models: Classical Nickel with Pearloid Buttons), Rosewood Pickguard (Steel-String Models)

Available Models

GT 811e*

812ce | 812ce 12-Fret | 812ce-N

814ce | 814ce-N

Builder's Edition 816ce*

818e

*기타 모델의 상세 스펙은 taylorguitar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can the cod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800 시리즈들의
비교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722ce



GUITAR
WORLD
BEST in SHOW

Builder's Edition 717e

700 Series

하와이안 코아는 지극히 매력적 무늬와 특유의 깔끔한 음색으로 많은 기타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새롭게 선보이는 700 시리즈 올코아 모델은 기존 코아 시리즈와는 달리 외관과 사운드에서 '자연스러움'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 목재의 외관부터 살펴보면 화려한 무늬 컬러 코아 대신 셀렉트 등급(Select Grade) 직선 무늬의 코아가 사용된다. 또한 마감이 유광 피니쉬 대신 초박막의 무광 피니쉬로 되어 있으며, 후판 브레이싱도 새로운 패턴으로 제작되었다. 그 결과 생동감 넘치고 뛰어난 편지력의 사운드와 함께 연주자의 스타일을 잘 반영하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살갓을 통해 느껴지는 새틴 피니쉬가 감촉이 연주자에 훨씬 친밀한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외관적 측면을 살펴보면 로즈우드 바인딩, 스테인드 메이플 원목 픽가드 그리고 브론즈 튜닝 머신 등 전체적으로 튀지 않는 절제의 미학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Specifications

Back/Sides: Hawaiian Koa

Top: Hawaiian Koa

Finish: Matte

Rosette: Single Ring Paua, Rosewood/Maple/Black Trim

Fretboard Inlay: Mother-of-Pearl Fountain

Body Edge Treatment: Indian Rosewood Binding

Premium Features: Taylor Polished Bronze Tuners, Bound Soundhole, Maple/Black/Rosewood Top Edge Trim, Dark-Stained Maple Pickguard



Available Models

722ce | 724ce

Builder's Edition 717e*

Builder's Edition 717e WHB*

*For model specs, visit taylorguitars.com



600 Series



메이플은 음색이 투명하기 때문에 연주자의 감성은 물론 기타의 구조적 성향도 지극히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스터 빌더 앤디 파워스는 2018년 V 클래스 브레이싱(V-Class Bracing) 등을 통해 사운드적 측면에서 진보를 이룩하고자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맑고 포커싱이 뛰어난 메이플 고유의 사운드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전보다 온화한 사운드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토러파이드 스프루스 상판과 V 클래스 브레이싱을 통해 사운드 깊이, 프로젝션과 서스테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핑거스타일 연주자나 리드 기타리스트는 물론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자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600시리즈의 다양한 모델 옵션에는 2종의 빌더스 에디션 (Builder's Edition) 모델과 가장 큰 바디인 그랜드 오케스트라 618e 그리고 GT 611e LTD(C 클래스 브레이싱) 등이 포함되어 있다.

Specifications

Back/Sides: Figured Big-Leaf Maple

Top: Torrefied Sitka Spruce (618e: Sitka Spruce)

Finish: Gloss 4.5 with Brown Sugar Stain (618e: Gloss 6.0 with Antique Blond Finish)

Rosette: Single-Ring Paua with Bound Soundhole

Fretboard Inlay: Grained Ivoroid Wings or Mother-of-Pearl/Ivoroid Mission (618e)

Body Edge Treatment: West African Ebony or Pale Non-figured Maple Binding (618e)

Premium Features: Ebony Backstrap with Inlay (excludes 618e), Nickel Tuners (12-Fret Models: Nickel Slot-head Tuners with Ebony Buttons), Grained Ivoroid Top/Back Trim, Maple Pickguard

Available Models

612ce | 612ce 12-Fret

Builder's Edition 652ce*

Builder's Edition 652ce WHB*

614ce | Builder's Edition 614ce*

Builder's Edition 614ce WHB*

618e

*기타 모델의 상세 스펙은 taylorguitar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uilder's Edition 652ce





■ 514ce

500 Series

마호가니는 로즈우드와 함께 아주 오래전부터 어쿠스틱 기타용 톤우드로 사용되어 온 목재이다. 기본적으로 깔끔한 음색에 포커싱이 뚜렷하며 특히 중음역대에서 상당히 두툽한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점이 매력이다. Taylor 500 시리즈는 연주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트로피컬 마호가니 측후판에 씨더, 마호가니 그리고 토러파이드 시트카 스프루스(빌더스 에디션 모델) 상판과 조합을 이루는 여러 바디 웨임의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성량과 서스테인의 증가는 물론 음정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V 클래스 브레이싱(V-Class Bracing)으로 설계되었다. 그 결과 중음역대에서 한층 더 온화하고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를 들려주며 프로잭션의 측면에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Specifications

Back/Sides: Neo-Tropical Mahogany

Top: Neo-Tropical Mahogany or Western Red Cedar

Finish: Gloss 6.0 (Mahogany-Top Models: Shaded Edgeburst)

Rosette: Single-Ring Faux Tortoiseshell & Grained Ivoroid

Fretboard Inlay: Grained Ivoroid Century

Body Edge Treatment: Faux Tortoiseshell Binding

Available Mod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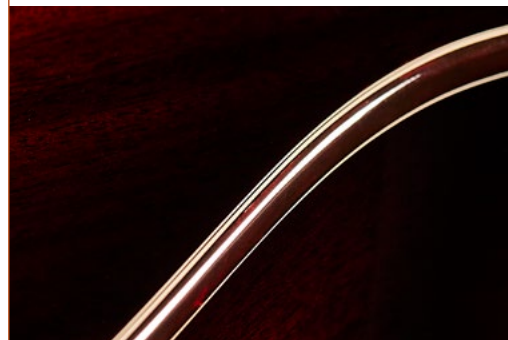
512ce | 512ce 12-Fret | 522ce

522e 12-Fret | 522ce 12-Fret | 562ce

514ce | 524ce

Builder's Edition 517e* | Builder's Edition 517e WHB*

*기타 모델의 상세 스펙은 taylorguitar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uilder's Edition 517e

400 Series

테일러의 400 시리즈는 프리미엄급 악기로서의 음향목과 완성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무대 또는 투어에서 부담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장 실용성이 높은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에는 그랜드 오디토리엄 바디 414ce-R와 그랜드 콘서트 바디 412ce-R의 2개 모델만 있다. 두 모델 모두 인디언 로즈우드 측후판에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V 클래스 브레이싱(V-Class Bracing) 설계에 힘입어 로즈우드의 사운드적 특성이 더욱 세밀하고 확연해졌으며, 성량도 한층 더 풍성해진 느낌이다. 한편 핑거보드와 헤드 플레이트에 사용된 우아한 느낌의 르네상스 인레이는 다소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 외관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 ES2 픽업 장착.

Specifications

- Back/Sides:** Indian Rosewood
- Top:** Sitka Spruce
- Finish:** Gloss 6.0
- Rosette:** Three-Ring White
- Fretboard Inlay:** Italian Acrylic Renaissance
- Body Edge Treatment:** White Binding



Available Models

412ce-R | 414ce-R





Builder's Edition 324ce

300

300 Series

300 시리즈는 다양한 음악 스타일의 뮤지션은 물론 기타 연주를 즐기는 아마추어 연주자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사운드와 연주 편의성을 겸비한 실용적 어쿠스틱 기타로서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왔다. 목재조합은 사펠리/스프루스, 올 마호가니 그리고 (비교적 최신작인 빌더스 에디션 324ce의 경우에는) 어반 애쉬/마호가니 세 가지 솔리드 우드 조합으로 되어 있다.

300시리즈 모든 모델은 서스테인과 볼륨을 향상시키는 V 클래스 브레이싱 (V-Class Bracing)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바디 형태를 통해 연주자는 각자의 음악스타일 및 체형에 맞는 모델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이 시리즈에는 12프렛 접합 모델과 12현 모델 그리고 나일론 스트링 모델도 선보이고 있다.

Specifications

Back/Sides: Sapele (Spruce Top) or Mahogany (Mahogany Top)
Top: Sitka Spruce or Mahogany
Finish (Back/Sides): Satin 5.0
Finish (Top): Satin 5.0/Shaded Edgeburst (Mahogany Top) or Gloss 6.0 (Spruce Top)
Rosette: Three-Ring Black
Fretboard Inlay: Italian Acrylic Gemstone
Body Edge Treatment: Black Binding



Available Models

312ce | 312ce 12-Fret | 312ce-N
322e | 322ce | 322e 12-Fret
322ce 12-Fret | 352ce | 362ce
314ce | 324e | 324ce
Builder's Edition 324ce*
326ce | 317e | 327e

*기타 모델의 상세 스펙은 taylorguitar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uilder's Edition 324ce



GT Series

작년에 첫선을 보인 GT는 작고 편안한 사이즈이면서 톤 손실 없이 풍성한 소리를 들려주는 대표적인 기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사이즈는 풀 사이즈인 그랜드 콘서트와 작은 사이즈인 GS Mini의 중간 크기이다. 현장도 중간에 해당하는 24-1/8 인치, 이는 풀사이즈 기타를 반음 낮춰 튜닝했을 때와 같은 장력이다. 프렛의 간격도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왼손 운지가 현격하게 편안해진다.

GT는 V 클래스 브레이싱(V-Class Bracing)을 GT 바디에 맞도록 개조된 C 클래스 브레이싱(C-Class Bracing) 설계에 힘입어 작은 바디가 갖는 저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톤과 풍부한 성량의 저음을 들려준다. 독특한 풍미의 GT 모델에 대한 기타 팬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새로운 목재조합의 신모델이 계속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그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Specifications

Back/Sides: Hawaiian Koa (GT K21ce), Indian Rosewood (GT 811e), Urban Ash(GT/GTe Urban Ash), American Walnut (GTe Blacktop), or Mahogany (GTe Mahogany)

Top: Spruce, Hawaiian Koa (GT K21ce) or Mahogany (GTe Mahogany)

*다른 GT 모델의 상세 스펙은 taylorguitar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T 811e



Available Models

GTe Blacktop | GTe Mahogany
GT Urban Ash | GTe Urban Ash
GT 811e | GT K21e

Scan the cod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GT 시리즈들의
비교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GTe Urban Ash



■ AD17e Blacktop

■ AD17e

AMERICAN DREAM Series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는 수준급의 사운드와 정밀한 완성도를 겸비한 (미국에서 제작되는) 테일러 울 솔리드 기타를 비교적 부담없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기타 설계에 있어 최고의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는 V 클래스 브레이싱(V-Class Bracing)이 장착되어 있어 음량, 프로텍션, 서스테인 및 깊이 있는 음색과 함께 테일러의 전매특허인 연주편이성도 온전히 갖추고 있다. 또한 전 모델 모두 바디의 접합부가 곡면 처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테일러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기존 6종의 그랜드퍼시픽 모델에 올해 새롭게 소개되는 AD27e 플레임 탑(Flame top)과 마호가니 상판의 그랜드 콘서트 모델 AD22e 등 2종의 새 모델이 추가됨으로써 선택의 폭은 한층 더 넓어졌다. 단순미를 강조한 외관 디자인에 뛰어난 사운드와 연주편이성을 갖춘 실용적 기타를 찾고 있는 연주자들에게 음악적 영감을 제공하는데 충분하다.

Specifications

Back/Sides: Ovankol (Spruce Top), Sapele (Mahogany Top) or Big Leaf Maple (AD27e Flametop)

Top: Spruce, Neo-Tropical Mahogany or Figured Big Leaf Maple (AD27e Flametop)

Finish: Matte 2.0 (Urban Sienna - Mahogany Top)

Rosette: Three-Ring Hawaiian Koa (Mahogany Top and Blacktop Models: Single-Ring Maple)

Fretboard: Eucalyptus

Fretboard Inlay: Italian Acrylic 4mm Dots

Body Edge Treatment: Chamfered Edges

Available Models

AD17 | AD17e | AD17 Blacktop | AD17e Blacktop
AD22e | AD27 | AD27e | AD27e Flametop



SUMMER NAMM
BEST *in* SHOW

American Dream Series

200 Series STANDARD | PLUS | DELUXE

새롭게 기타연주를 시작해 평생을 같이할 기타를 찾고 있는 초심자들에서부터 공연용 기타가 필요한 탑 클래스 프로연주자들에 이르기까지... 200시리즈는 폭넓은 수준의 연주자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목재구성과 옵션을 갖추고 있는 여러종의 모델들이 포진하고 있다.

200시리즈는 크게 스탠다드, 플러스 및 딜럭스 모델로 나뉘지며, 다양한 톤우드 구성은 물론 나일론 스트링 및 12현 모델 등 그 선택의 폭이 무척 넓다. 모든 모델들이 솔리드 우드 상판으로 되어 있어 풍부한 성량과 뛰어난 프로젝션 그리고 밸런스가 갖춰진 어쿠스틱 사운드를 들려준다. 또한 테일러의 전매특허인 편안한 넥과 공연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ES2 픽업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Specifications

Back/Sides: Layered Koa, Rosewood or Maple

Top: Hawaiian Koa or Sitka Spruce

Finish: Matte or Gloss 6.0 (Plus and DLX Models)

Rosette: Three-Ring White or Single-Ring Italian Acrylic (DLX Models)

Fretboard Inlay: Italian Acrylic 4mm Dots or Italian Acrylic Small Diamonds (DLX Models)

Body Edge Treatment: White, Black or Cream Binding

Premium Features: Taylor Nickel (Plus Models), Gold (Most DLX Models) or Satin Black (-BLK DLX Models) Tuners; AeroCase (Plus Models); Deluxe Hardshell Case (DLX Models)

Available Models

210ce | 214ce | 214ce-N

214ce-K | 214ce-K SB | 254ce

210ce Plus | 214ce Plus

250ce-BLK DLX | 214ce DLX | 214ce-K DLX

214ce-BLK DLX | 214ce-SB DLX | 224ce-K DLX





114e

100

100 Series

테일러 기타는 어쿠스틱 기타가 갖는 한계를 초월하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다. 그렇지만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 즉, 맑은 음색과 뛰어난 밸런스 그리고 편안한 연주감의 넥이 바로 그것이다. 100시리즈는 그러한 기본에 가장 충실한 라인업이며, 부담없는 가격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자 그리고 초심자에서부터 전문가들까지 폭넓은 수준의 플레이어들에게 완벽한 만족감을 선사하는 성능지향성 기타이다. 43mm의 핑거보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은 넥을 선호하는 연주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온보드 ES2 픽업은 플러그인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공연이 가능하다. 100시리즈에는 12현 기타중 베스트셀러인 150e 와 드레드넛 모델 110e 그리고 그랜드 오디토리엄 모델 114ce가 있다.

Specifications

Back/Sides: Layered Walnut

Top: Sitka Spruce

Finish: Matte

Rosette: Three-Ring White

Fretboard Inlay: Italian Acrylic 4mm Dots

Body Edge Treatment: Black Binding

Available Models

110e | 114e | 114ce | 150e

ACADEMY Series

우리는 가끔씩 기타를 처음 만나서 연주를 시작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기도 한다. 아카데미 시리즈는 “초보자들이 처음 기타를 접한 후 끊임없이 음악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극히 친밀한 느낌의 기타를 만들어보자.”라는 뜻을 바탕으로 기획된 모델들이다. 1-11/16인치와 좀 더 친숙한 너트 폭, 테일러의 전매특허인 슬림 프로파일 넥으로 설계되어 여러분의 왼손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특히 바레(Barre) 코드를 연주할 때...

아카데미 시리즈의 결정적 매력은 빌트인 암레스트(Armrest). 주로 하이엔드 커스텀 기타에만 사용되는 옵션인 암레스트는 오른팔의 받는 압력을 덜어줌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오른손 연주를 펼칠 수 있다. 아카데미 시리즈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기타이지만 수준급의 프로 연주자들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성능과 사운드를 갖추고 있다. 드레드넛과 그랜드 콘서트 2종의 바디로 출시되며, 디지털 튜너가 내장된 픽업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나일론 스트링 기타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 나일론 스트링 모델인 Academy 12-N은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Specifications

- Back/Sides:** Layered Sapele
- Top:** Sitka Spruce or Lutz Spruce (Nylon)
- Finish:** Matte
- Rosette:** Three-Ring Baltic Birch
- Fretboard Inlay:** Italian Acrylic 4mm Dots
- Body Edge Treatment:** Beveled Armrest

Available Models

- Academy 12 | Academy 12e
- Academy 12-N | Academy 12e-N
- Academy 10 | Academy 10e



Academy 12e



GS Mini-e Koa Plus

MINI

GS MINI Series

GS Mini는 지난 12년간 베스트 셀러 자리를 지켜오면서, 어쿠스틱 기타 역사상 시장을 석권한 극소수 모델중 하나로 꼽힐 정도의 성공적 모델이 되었다. 연주가 쉽고 재미있는 기타, 갖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타,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풀 사이즈 기타에 못지 않는 강력한 파워가 이 기타의 가장 돋보이는 매력이다. 캠프파이어에서 연주할 수도 있지만 프로들이 스테이지에서 연주해도 손색이 없는 유용성과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 오리지널 GS Mini의 엄청난 성공에 힘입어 지극히 다양한 톤우드 구성의 여러 모델들과 함께 GS Mini 베이스까지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GS Mini 모델을 통해 연주자들은 음악적 스타일과 연주력 수준에 구매받지 않으면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맞는 GS Mini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GS Mini

Specifications

Back/Sides: Layered Koa, Rosewood, Maple or Sapele

Top: Hawaiian Koa, Sitka Spruce or Neo Tropical Mahogany

Finish: Matte

Rosette: Three-Ring White

Fretboard Inlay: Italian Acrylic 4mm Dots

Body Edge Treatment: Black/White/Black Top Purfling

Premium Features: Shaded Edgeburst, Taylor Nickel Tuners, Expression System 2, AeroCase (GS Mini-e Koa Plus)

Available Models

GS Mini Mahogany | GS Mini-e Mahogany | GS Mini-e Koa

GS Mini-e Koa Plus | GS Mini Rosewood | GS Mini-e Rosewood

GS Mini-e Maple Bass | GS Mini-e Koa Bass



Scan the cod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GS Mini 시리즈들의 비교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BT1

BABY Series

베이비 테일러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는 기타이다. 여행용 기타의 시장을 개척한 파이프오니어적 모델일 뿐 아니라 프로연주자, 어린이 그리고 음악여행자 등 폭넓은 유저들에게 음악적으로 완성도 높은 악기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였다. 소개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새로운 유저들에게 기타 연주의 즐거움이라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특히 하이 스트링(High-Strung) 기타와 비슷한 사운드가 지극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풍성한 사운드를 내주는 솔리드 우드 상판, 테일러의 전매특허인 편안한 연주감의 넥, 여행에 최적화된 깃백과 온보드 픽업까지... 작지만 기타가 갖춰야 할 모든 미덕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베이비 시리즈 기타는 캠핑, 여행 등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정에 든 유저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Specifications

Back/Sides: Layered Walnut (Spruce Top), Sapele (Mahogany Top, TS-BT) or Koa (Koa Top)

Top: Sitka Spruce, Neo-Tropical Mahogany or Hawaiian Koa

Finish: Matte

Rosette: Single-Ring Black (TS-BT Models: Custom Screen Print Design)

Fretboard Inlay: Italian Acrylic 4mm Dots

Body Edge Treatment: None

Available Models

BT1 | BT1e | BT2 | BT2e | BTe-Koa

BBT | BBTe | TS-BT | TS-BTe

T5Z / T3

T5z

T5z는 할로우 바디 일렉트릭 어쿠스틱이 결합된 미래지향적 하이브리드 기타이다. 3개의 픽업과 특허등록된 정밀전자회로의 픽업시스템은 5단 픽업 모드 스위치를 작동시켜 지극히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온화한 음색의 어쿠스틱 기타, 두툼한 사운드의 할로우 바디 기타, 클린 블루스 톤 그리고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어쿠스틱에서부터 다양한 일렉트릭기타의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다. 12인치 라디우스에 점보 프렛으로 제작되어 운지가 편안하고 정교한 연주가 가능하다. 가장 편안한 넥으로 이름높은 테일러 특유의 넥 프로파일 덕분에 리프나 솔로 등 모든 스타일의 연주가 한층 수월해진다. T5z에는 다양한 탑(top) 우드, 색상 및 피니쉬 그리고 12현 모델 등의 옵션이 있어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Pickup Positions

- 포지션 1 : 넥 험버커 + 바디 센서
- 포지션 2 : 넥 험버커 단독
- 포지션 3 : 브릿지 험버커
- 포지션 4 : 넥 + 브릿지 험버커 (병렬)
- 포지션 5 : 넥 + 브릿지 험버커 (직렬)

T3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 T3은 지난 수십년간 전통적으로 제작되어 온 픽업 및 전자회로 구성으로 제작되었다. 빈티지 퐁의 온화한 음색을 들려주는 이 기타는 2개의 초고해상도 험버커(또는 빈티지 알니코 픽업)가 장착되어 있다. 3개 포지션 스위치와 코일 스플리팅을 통해 다채로운 톤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에 널리 사용할 수 있다. 스탑테일 (Stoptail) 브릿지 또는 빅스비(Bigsby) 트레몰로 테일피스의 T3/B 두 가지 사양으로 출시된다. 특히 빅스비의 경우 암(Arm)을 작동시켜 벤딩을 하더라도 안정적 피치가 유지된다는 점이 큰 메리트이다.

Specifications

T5z Series

Body: Sapele
Top: Figured Koa (Custom), Figured Maple (Pro), Sitka Spruce (Standard), Neo-Tropical Mahogany, Sassafras or Koa (Classic)
Finish: Gloss with Selected Color, Satin (Classic)
Fretboard Inlay: Italian Acrylic Small Diamonds or Spires (Custom & Pro)
Electronics: Three-Pickup System with Five-Way Switching

T3 Series

Body: Sapele
Top: Layered Figured Maple
Finish: Gloss with Selected Color
Fretboard Inlay: Mother-of-Pearl 4mm Dots
Electronics: Taylor HD Humbuckers with Coil-Splitting (Optional: Vintage Alnicos)

Available Models

T5z Custom K | T5z-12 Custom K | T5z Pro
T5z Standard | T5z Classic | T5z Classic Sassafras
T5z Classic Koa | T5z-12 Classic | T5z Classic DLX
T5z-12 Classic DLX | T3 | T3/B



Scan the cod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T5z의
데모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The Craft

끝없는 도전을 추구하는

앤디는 기타 제작 세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새로운 발견을 하고 맞이하는 쾌감을 음미하고 있다.

기타를 제작하는 삶은 음악을 만들어 내는 삶과 같다. 일과 보상의 기대 치는 인생의 다른 측면과 다를 바 없다. 즉, 노력한 시간에 따라 그 결과로 성취감이나 결승선 통과에 대한 축하가 뒤따른다.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또 도착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타 제작과 음악 연주는 좀 더 긴 지속성의 길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 벤치에 앉아 처음으로 새 악기를 연주하는 몇 시간이 몇 주, 몇 달로 변하거나, 열심히 연습한 후에 새 노래를 연주하는 기대와 즐거움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은 레이스의 결승점과 같은 종점이 아니라 단지 끝없는 탐구의 다음 단계일 뿐이다.

음악을 배움에 있어 진정한 종착점이 없는 것처럼 악기 제작에도 진정한 의미의 완성이란 없다. 음악을 만드는 것은 악기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할 뿐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능력치를 넓히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소한 일과 보상

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프렛보드를 붙여서 그것을 감상하거나, 프렛을 설치하고 그 매끄러운 표면에 감탄하고, 새로운 코드 진행을 접했을 때 어떻게 참신한 방식으로 다음 코드로 넘어갈지를 상상하게 된다.

내가 어렸을 때 목수였던 아버지는 종종 일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삶의 전부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다. 이러한 말은 어쩌면 우울한 체념으로 오인될 수도 있지만, 그 정서는 항상 낙천주의와 기회로 이어지는 현명한 조언이었다.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격려였다. 보람되고 큰 목표를 위해 수행된 무수히 많은 일들에 감사하고 축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아버지의 경우 목수로서의 꿈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커다란 목표이지만 수많은 작은 일들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하나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를 만드는 것 또한 큰 프로젝트이지만,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는 것처럼 그 자체의 즐거움이 있는 부분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아마도 집을 짓거나 기타를 치는 것보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끝이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훌륭한 재능을 가진 음악가들과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다. 거기서 내가 배운 한가지 공통된 교훈은 그들에게 결코 끝이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우고 연주해야 할 모든 노래를 연주했다 하더라도 연주를 멈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음악가들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스타일과 영향력을 추구하고 그들의 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운드를 넓히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내가 대학에 있을 때, 한 음악 교수가 좀 과장된 질문으로 이렇게 요약했다. "모든 음계 중에서 가장 단순한 C장조를 몇 번이나 연습할 수 있을까? 아무리 많이 한다한들 그건 충분할 수 없다."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만이 새로운 작업의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 없이 재창조되는 프로젝트의 세계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좋은 접

근방법이다. 나는 좋아하는 노래나 멜로디를 새로운 느낌이나 새로운 악기 구성으로 듣는 것을 좋아한다. 기타 제작자로서 우리는 우리 작업에서 영감을 얻고 새로운 영감과 다른 모양 또는 사운드로 좋아하는 곡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 작품과 더불어 작업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작품을 추가하는 것도 좋아한다. 새로 작곡된 노래가 세트리스트에 있는 즐겨 찾는 곡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창작물이 오래된 창작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쓸모 없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들은 단순히 선택의 폭을 넓힐 뿐이다.

우리의 최신 악기 라인업을 보면, 선택할 수 기타가 놀랄 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타의 종류가 정말 많다는 것도 엄청나지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도 의문스러울 정도다. 기타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에 각각의 목적이 있었고, 기타 제작자로서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프렛보드, 프렛, 사운드보드, 넥 또는

기타줄을 일일이 손보는 것은 기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즐길 수 있는 작은 일이었다. 그 중 일부는 우리가 자주 찾는 모델이 되었다. 월넛이나 마호가니로 만든 새로운 그랜드 시어터 와 같은 기타들은 신선한 사운드로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새로운 플레임탑 그랜드 퍼시픽은 메이플 탑을 장착하여 하드우드 탑 기타 레퍼토리중에서도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출시되는 악기든 또는 기존 카탈로그 기타이든, 여기 테일러에서는 각각의 기타 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단계를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음악가들이 그들의 음악을 위해 선택한 기타들로 연주하는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앤디 파워스(Andy Powers)
마스터 기타 디자이너

“
나는 운이 좋게도 아주 뛰어난 음악가들과
음악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
내가 배운 한가지 공통된 교훈은
그들에게 결코 끝이란 없다는 것이다.
”

TaylorWare

CLOTHING / GEAR / PARTS / GIFTS

Guitar Stands | 기타 스탠드

모든 기타는 예술작품으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컨셉으로 제작되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아래 사진에서 시계방향으로 보면 맨 왼쪽 이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마호가니 스탠드, 비치우드 스탠드, 앞으로 접이식 여행용 블랙 스탠드 그리고 컴팩트 폴딩 스탠드가 있다. 모든 스탠드는 고무 범퍼가 달려 있어 기타의 손상을 방지해준다.

Pick Tins | 피크 박스

다크 톤의 피크 박스 시리즈로 피크 9종으로 이루어진 샘플 팩이 담겨 있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 스타일이다. 각 샘플 팩은 다크 톤 계열의 피크 시리즈(Ivoroid, Thermex Ultra, Thermex Pro 그리고 Taylex)중에서 사이즈나 재질이 다른 피크를 골고루 담아서 피크마다 달라지는 음색의 미묘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

DarkTone Series

Pick Tin

Model #2600

2.75" x 1.625"

블랙 메탈 케이스, 슬라이딩 개폐



DarkTone Series

Pick Tin - Collector's Edition

Model #2601

3.625" x 2.375"

코아나무로 오버레이되고, 레이저 프린팅 테일러 로고가 있는 블랙 메탈 케이스. 경첩 개폐, 테일러 로고가 새겨진 가죽 내피.



Apparel | 의류

테일러 의류제품에는 티셔츠, 모자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Guitar Straps | 기타 스트랩

테일러의 고급형 기타 스트랩 라인은 천연가죽, 스위트드, 먼 그리고 인조가죽 등의 여러 가지 재료로 제작된 제품군이다. 다양한 색상과 뛰어난 디자인의 스트랩들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Featured Products



Taylor Digital Tuner

테일러 디지털 튜너

기타리스트들에게 필요한

뛰어난 성능의 신제품 튜너.

테일러 디지털 튜너는 어쿠스틱 기타나

일렉트릭 기타에 모두 사용 가능하고

헤드에 편하게 장착할 수 있는 클립형 튜너이다. 명확한 디스플레이와

빠르고 정확한 반응이 연주자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1200



Taylor Hygrometer | 테일러 온습도계

테일러의 새로운 디지털 습도계는 기타 케이스 내부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또는 연주자의 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공간에 대한 명확한 온.습도 정보를 제공한다. 2개의 큰 LCD 화면을 통해 온도와 습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평평한 면에 세우기 위한 틸트 스탠드와 벽면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브래킷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습도 범위는 10%~95%(정확도 : ± 5%), 온도 범위는 -40℃~70℃(-40℉~158℉)이다. 화씨/섭씨로 전환 가능, AAA 배터리 2개로 작동.

#1319



Capos | 카포

테일러 카포는 종래 제품들의 단점, 즉 균일하지 않은 압력으로 기타 줄을 눌러서 결국 부정확한 음정과 코드로 이어지는 단점을 개선하고 사용하기도 편한 고성능 제품이다. 미국산이며 테일러 기타 넥의 라디우스에 맞추어 제작되고 요크가 둘러싸고 있어서 기타 줄을 균일한 압력으로 누르게 된다. 그 결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튜닝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빠르게 풀 수 있는 잠금 방식이고 사이드 범퍼가 있어 카포를 이동할 때 기타 넥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카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너트 뒤쪽으로 이동시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 6줄기타용과 12줄 기타용(나일론 줄 포함)이 있으며 각각 브라이트 니켈과 블랙 니켈 마감 모델이 있다.

Ebony Guitar Slide | 에보니 기타 슬라이드

테일러 에보니 기타 슬라이드는 카메룬에서 자라는 아프리카 에보니를 그대로 사용하여 연주자들에게 익숙한 유리나 메탈 슬라이드와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4가지 사이즈로 출시됐으며 부드럽고 따뜻한 톤의 슬라이드 기타 사운드를 들려준다. 기타 제작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에보니를 슬라이드로 만들면서 소중한 목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에보니 슬라이드의 수익금은 나무 심기 프로젝트와 다른 환경 활동들을 지원한다. 스몰(11/16"), 미디움(3/4"), 라지(13/16"), 엑스 라지(7/8") 구매 가능.



Home and Gifts | 가정용 및 선물용 제품



Taylor Leather Wallet | 테일러 가죽 지갑

카드 및 현금을 정리할 수 있는 세련된 머니클립형 가죽 지갑.

싱글 피크 홀더와 음각으로 테일러 로고가 새겨진 디자인이 특징이다.

#1514

Taylor 24" Brown Stool

테일러 브라운 회전 의자

가정에서 연습하거나 연주할 때 최고의 편안한 자세를 제공하는 고급 회전 의자다. 무광 브라운 색상의 모델로서 24 인치 사이즈다. 폭신한 쿠션 시트에 발을 걸쳐 놓을 수 있는 링 받침이 있어 한결 편안한 연주가 가능하다.



Ebony Guitar Hangers | 에보니 기타 행거

정교하게 제작된 이 기타 벽걸이 행거는 테일러 기타의 fretboard와 브릿지에 사용되는 에보니와 동일한 아프리카 크렐리쿰산 에보니로 만든 것이다. 기타 피니쉬나 넥이 손상되지 않도록 겹개 부분이 쿠션 처리되어 있으며 에보니 특유의 아름다운 외관은 테일러의 장인정신과 테일러가 엄선한 음향목의 자연미가 빛어낸 결과다. 이 제품의 판매수익은 테일러의 식림사업과 지속가능성 계획을 지원하게 된다.



이 모델은 이태리 아크릴 디자인의 테일러 로고가 인레이로 들어간 제품이다. (#77207)

이 모델은 머틀 우드와 회양목으로 디자인된 꽃다발 모양의 인레이가 들어간 제품이다. (#70193)

To order TaylorWare, contact an Authorized Taylor dealer in your area.

테일러 웨어 제품의 주문은 가까운 테일러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ot all items available in all markets.



이 책자는 삼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가 인정하는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FSC®는 전세계 삼림과 관련한 환경친화, 자생적 경영, 사회적 책임 등을 도모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Wood&Steel

A Publication of Taylor Guitars Volume 102 / 2022 Issue 1
KOREAN

Taylor Guitars | 1980 Gillespie Way | El Cajon, CA 92020-1096 | taylorguitars.com
우드&스틸 매거진 VOL.102 / 2022 Issue 1 한국어판 | 발행 : 어쿠스틱 기타 앤 뮤직 02-587-3021

전국 테일러기타 대리점

공식 서비스 센터					
서울/경기/인천 경은어쿠스틱 뮤직포스 버드뮤직 버즈비 분당악기(기타공작실) 스쿨뮤직 악기나라 악기정류장	원일악기사 어쿠스틱갤러리 어쿠스틱마트 어쿠스틱존 엠제이어쿠스틱 우리악기사 월드악기프라자 통기타이야기 프리버드	피스뮤직 형제악기사 부산 페이스뮤직 대구 무궁뮤직no.1 이레악기 광주 벨라뮤직	울산 기타퍼스트 충북 권악기(청주) 충남 뮤직센터(천안)	경남 기타벅스(창원) 플러스뮤직(창원) 제주 나무뮤직(제주)	경은어쿠스틱 02-744-6433 버드뮤직 02-6925-7042 우리악기사 02-2202-8884 페이스뮤직 070-8763-9852

Hawaiian Punch

700시리즈가 지금까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의 하와이안 올 코아 구성으로 재탄생했다. 우선 직선무늬의 셀렉트 등급 코아가 매혹적이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초박막 무광 피니쉬로 마감 처리되어 있어, 코아 특유의 멋드러진 나뭇결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드러내주고 있다. 사운드의 측면에서 보면 초박막 피니쉬와 새로운 후판 브레이싱을 통해 코아의 특징인 중음역대의 달콤한 음색을 잘 살리고 것은 물론 기존의 코아 시리즈보다 좀 더 강력한 편치력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700시리즈는 코아 매니아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아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할 것이다.
(세부사항은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724ce

